



우리 민족 제일 일일세

금지에 넘쳐 (♩=140)

작사 리광선
작곡 황진영

mf E[♭]

A[♭] Fsus7 B[♭]7

1. 오 천 년 - 의 력 사 와 - 문 화 를 가 진 -

E[♭] A[♭] B[♭]7 E[♭]

례 절 밝 - 고 문 명 한 - 민 족 이 - 라 오 -

f A[♭] E[♭] Fm F₇ B[♭] E₇[♭]

자 랑 하 자 - 우 리 민 족 - 사 랑 하 자 우 리 의 땅

A[♭] E[♭] B[♭]7 E[♭]

세 상 천 지 - 둘 러 봐 도 - 우리 민 족 제 일 일 세 -

2. 자기것을 제일로 여기는 나라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이라오
(후렴)

3. 해와 별 찬란해 빛나는 민족
온 세상에 존엄을 펼쳐간다오
(후렴)



진심어린 열광의 환호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 총진군대오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차례

세계를 뒤흔든다 장쾌한 핵뢰성	3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열쇠	6
제 죽을 구뎅이를 제가 파는 망동	7
일화	
소중히 여기신 문제	8
무시할수 없는 민족음식	10
향상되는 우리의 민족음식	11
민족적인 맛과 향기 넘치는 료리경연	14
녀성료리사들의 열정이 낳은 열매	16
한가정의 식탁은 크지 않아도	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930년 여름	19
경제개발구에서의 특혜적인 세무제도	21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	
철길증진을 다그친다	22
다시 그린 철망도	24
로동이후의 문화정서생활	26
우리가 만나본 헌망생들	28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30
교육자부부	32



22

인기있는 약품과 그 개발자들	34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큰 익을 내도록	35
고려의 과학기술 (2)	37

고향소식

진실로 약동하는 산물군	38
--------------	----

조국의 품에 안겨

『울밀대』 제품에 마음을 담아	40
------------------	----

편지

조카의 편지를 받아보고	42
--------------	----

애국의 길에서	43
---------	----



44

고국방문

자랑찬 승리의 상징	44
------------	----

인상기

언제나 조국과 함께	46
------------	----

승마의 기쁨	46
--------	----

력사인물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 홍경래	47
------------------	----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 새로 발굴	48
----------------------	----

민족의 향기

조선김치맛과 둑	50
----------	----



53

개성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2)	51
--------------------	----

조국의 천연기념물 (10)	52
----------------	----

민족대단결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54
---------------------	----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여야 한다	55
------------------	----

《엎드려 사죄하라 르럼프여》	56
-----------------	----

상식	
『간성춘예집』	25
각궁	33
온천치료의 좋은 점과 치료방법	41
유모아	
로인의 착각	47
조선속담 (헛수고)	53

세계를 뒤흔든다 장쾌한 핵뢰성

지구가 진동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이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거대한 충격으로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온 행성이 벽적 끊으며 너무도 크나큰 사변앞에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조선은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나 다 해낼수 있고 다 이룩할수 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무적의 힘과 위용을 지닌 백두산대국의것이라는것을 소리높이 선언한 장쾌한 뢰성이였다.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이는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조선이 거둔 또 하나의 패승이며 제국주의최후멸망을 선언한 축포성이였다.

조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백악관의 주인자리에 들어앉은 트럼프는 전 행

정부의 대조선정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공화국에 보다 더 강도높은 핵위협공갈을 들이대였다. 그리고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 군사, 경제, 《인권》 등 분야에서의 공세작전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는 더욱더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여갔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대처하기 위해 공화국은 자위적조치들을 련이어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이 저지른 주권국가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 침략전쟁도발행위를 돌이켜볼 대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상대방의 자위적조치에 대해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초강경제재조치를 련속 취하는 한편 《북정권교체》와 지어 공화국의 《지도부제거》까지 시도하였다.

더는 참을수 없는 사태하에서 공화국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버릇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때라도 미국이 저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자중자숙하였다면 사태가 달리 되였을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트럼프 미행정부는 대책없는 쪽언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는 소식에 점하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다. (미래과학자거리에서)



과 포악한 제재, 군사적 행동으로 맞대응하였다.

지어 감히 《전쟁불사》요, 《화염과 분노》요, 《참수작전》이요, 《예방전쟁》이요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악명을 떨친 《네이비 셀》 등 테로전 담특수부대들을 조선에 긴급 투입하고 《B-52》, 《B-1B》, 《B-2A》를 비롯한 미제침략군의 지상과 해상, 공중전략자산들과 《F-22》스텔스전투기편대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며 전례없는 전쟁광기를 부려댔다.

이런 날강도적인 횡포와 위협을 공화국이 어떻게 묵묵히 앉아 감수하며 당하기만 하겠는가.

공화국이 팜도포위사격방안검토에 이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한것은 결국 미국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꾀뢰군부호전 광들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핵전쟁 연습에 이어 또다시 공화국을 반대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북침전쟁연습의 그 위험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은 새로운 중대한 결심을 내리였다.

지난 9월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정치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에 대한 분석평가가 있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진행한 핵무기 병기화연구사업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

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을 단행 할데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공화국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측정결과 총폭발위력과 분열 대 융합위력비를 비롯한 핵전투부의 위력지표들과 2단열핵무기로서의 질적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였지만 지표면분출이나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폭발시험과 각종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

지방들에서도 성대히 경축



학교와 가정들에서도 격동에 젖어있다.

배치형 핵폭발조종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공화국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어 공화국의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백두산대국의 장쾌한 뢰성이 누리를 진감시킨 소식은 삽시에 조국땅을 격정과 환희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여 인민이 터쳐올리는 우렁찬 만세소리가 또 하나의 수소탄폭음인양 천지를 진감하였다.

《선군조선의 장쾌한 핵뢰성은 미제에게 내리

는 단호한 징벌이며 철추이다.》, 《주체조선의 장쾌한 승전포성은 조국의 억센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힘있게 떨치였다.》, 《사회주의 강국의 공민된 궁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끓어넘친다.》…

몇몇 사람들이 터친 격정의 토로만이 아니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피를 끓이며 터친 심정이였다.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대한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리자 온 나라의 초소와 일터, 거리와 마을, 집집들에서 우렁차게 터져나온 만세의 환호성, 서로 얼싸안고 너무도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울고웃던 사람들…

밤이 와도 잠을 이루지 못한 인민이었다. 마치 전승의 축포가 오른 그밤처럼 거리와 마을들이 잠들 줄 모르고 명절처럼 흥성이고 밤깊도록 수소탄 이야기로 꽂을 괴웠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공화국은 조미대결에서 또다시 통쾌하게 승리하였고 미국은 여지없이 패하였다.

이 패배에서 자중자숙할 대신 트럼프는 유엔총회마당에까지 나서서 자주적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나발까지 불어댔다. 여기에 주저앉을 조선인민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절멸을 쥐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라고, 미국의 늄다리미치 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일 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선의 천만군민은 정의의 핵보검을 억세계 틀어쥐고 침략자 미제에게 더 무서운 보복의 불소나기를 쏟아부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의 열쇠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 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 공소식이 전세계에 거대한 화문을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국기핵무력건설업적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브라질인터넷통신 《G1》은 론풍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또 하나의 핵탄폭발이 보여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즉 김정은령도자께서 승리하시였다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자기 나라를 핵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본질상 이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주도권을 쥐고계시기때문에 미국은 발편잠을 잘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미국의 《국가리익연구소》국방연구실장은 정치시사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론풍에서 《이번에 진행된 성공적인 핵시험은 북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일단 결심하신것은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빈틈없는 지도자이시라는것을 똑똑히 증명》하였다며 강조하였다.

여론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조미사이의 혁학구조가 변하고 세계정치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정한데로부터 현실에 립각하여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미국의 AP통신, ABC방송,

신문 《워싱톤 포스트》, 영국의 로이터통신, 신문 《인디펜던트》, 프랑스의 AFP통신 등 서방언론들은 공화국의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전하면서 이것은 조선문제해결에서 우유부단한 립장을 취해온 미국대통령 트럼프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사변은 미국과 조선 사이의 대결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조선의 핵질주를 막을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것을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보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도이체 웰레 방송은 《북조선의 핵폭탄시험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것을 실증》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이 진행한 수소탄폭발시험은 미국에 있어서 쓰디쓴 순간이였다. 이러한 폭탄 한발로도 뉴욕을 폐허로 만드는데 충분하다.

제재를 통해 조선의 핵 및 미싸일계획을 중지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은 실패하였다. 미국이 제재를 계속 확대하면서 그 효과를 기다린다면 조선은 자기의 미싸일완성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버는셈이다.

미국은 현재 조선반도에서 패배자이다. 트럼프는 조선을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때마다 종이범으로서의 정체만으로출시키고있다.

중국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실린 뉴욕주재 본사특파기자의 론풍은

조선의 비핵화나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을 비핵화시키는 목표에서 실패한 조건에서 이제는 새로운 현실적인 정책을 생각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의 언론들이 평한바와 같이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미국의 《제재》소동과 군사적선택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자멸적인 객기라는것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야말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열쇠라는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국의 현실적인 힘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못 가지고 아직도 《제재》와 군사적선택에 희망을 걸고 어리석고 미련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리성을 잃고 반공화국 《제재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 계속 매달릴수록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은 세계가 상상할수 없는 비상한 속도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간다는것이다.

세계를 뒤흔들어놓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이 그에 대한 실증이다.

미국은 공화국의 눈앞의것도 위력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것도 더 위력하다는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사기자

제 죽을 구뎅이를 제가 파는 망동

미국이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련속적인 불뢰성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열이 나가 분별을 잃고 히스테리적인 망동을 부리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같이 유엔에서 공화국에 대한 극악무도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낸 미국은 그와 때를 같이하여 《전쟁불사》, 자주적 국가의 《완전파괴》까지 떠들며 전쟁광기까지 부려대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광기는 지난 시기에 그려했던것처럼 지금도 상대가 누구인지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초보적인 인식도 분별도 없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파한것이며 제 죽을 구뎅이를 제가 파는 망동에 불파한것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제

가 지금까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세기이상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책동 등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 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집권한 부시행정부만 보아도 공화국과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하였으며 공화국을 《악의 축》

이라고 하면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핵위협을 전례없이 강화해나섰다. 핵과 대망상승으로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국은 공화국에 매번 된매를 맞으면서도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에 끈질기게 매달리였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때만이라도 미국은 제정신을 차리고 저들을 위해서라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수정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부쉬행정부에 잇달아 집권한 오바마행정부 역시 집권초기부터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을 추구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각본들을 짜놓고 핵전쟁연습을 감행

하는 한편 공화국의 명줄을 조일수 있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은 공화국이 보다 강력한 초강경대응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공화국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며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어나가게 하였다. 세계는 날로 악화되어가는 조선반도정세를 우려하며 새로 집권한 트럼프행정부가 선행한 미행정부들의 실패작으로 끝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었고 권고도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모든것을 쥐버리고 집권초기부터 선행자들보다 더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적대시

선전화 《우리의 앞길은 막지 못한다!》



정책을 내놓고 공화국에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압박을 가해 오는 한편 공화국을 극도로 고립시키고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 를 강탈하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아버리려고 미쳐 날뛰였다. 그리고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과 같은 국가에 범죄도 거리낌 없이 감행 하려 들었으며 세계에 대고 공화국과 협조하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겠다느니, 외교 관계 급수를 낮추라느니 뭐니 하면서 주권국가들에 위협과 공갈을 마구 해댔다.

날이 갈수록 포악무도해지는 미국의 침략전쟁도발책동과 핵 위협공갈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고도로 강화발전된 핵억제력을 세계 앞에 파시하였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은 물론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전면적인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은 미국을 전률시켰으며 그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떨게 하였다.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미행정부와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련속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트럼프자신도 맥빠진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정도이다. 그들이 저들의 불안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지금 단말마적인 최후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때가 늦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고자대에 쩌들어 공화국을 오펜하던 끝에 결국은 제 죽을 구뎅이를 제가 판격이 된것이 바로 미국의 처지이다.

이것은 조미대결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한 미국에게 차례진 응당한 대가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 일화 ◇

소중히 여기신 문제

민족음식을 장려하도록 하시여

주체76(198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료리사들에게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음식들을 만들도록 하시고 일군들과 함께 그것을 보아주시였다.

품종별로 차려놓은 민족음식들을 주의깊게 일별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 맛까지 보아주시며 보라고,

우리 민족음식이 얼마나 다양 한가고 하시며 료리사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이르시였다.

료리사동무들은 동무들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말고 널리 보급하고 일반화하여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명절날은 물론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민족음식을 자체로 만들어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료리사들과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내가 이 동무들에게 민족료리를 위주로 하여 음식을 만들라고 과업주기를 정말 잘하였습니다.

이마동무들을 비롯해서 많은 일군들도 그렇고 또 자라나는 새 세대들도 민족료리의 가지수가 얼마나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어느 명절에는

어떤 음식을 지어 먹었으며 절기가 바뀔 때마다 즐겨먹던 음식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이어 손수 여러 음식들을 꼽아가시며 어떤 음식은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음식은 더울 때의 맛과 식은 다음의 맛이 같지 않으며 그에 따라 약효도 서로 다르다고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그래도 료리분야에서는 막히는것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료리사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풍부한 료리지식과 상식에 연방 감탄을 터뜨리였다.

그이께서는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음식을 더 많이 찾아내고 장려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민속전통을 대를 이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민족음식에 어린 숭고한 뜻

주체97(2008)년 6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개건된 청류관을 찾으시였다.

1층과 2층의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류관에서 봉사하는 주식류들과 료리들을 전시해놓

은 어느 한 호실에 들어서시였다.

신선로 앞에 다가서신 그이께서는 신선로는 원자재가 좋아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원자재가 확보된 조건에서만 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어 미나리김치옆에 있는 빨간무우김치에 시선을 주신 그이께서는 이것은 무슨 김치인가고 물으시였다.

빨간무우김치라는 일군들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총각김치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빨간무우김치는 총각김치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고나서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연한 잎줄기가 불어있는 어린 무우로 만든 김치를 총각김치라고 불렀다고, 빨간무우로 만들었다고 하여도 예로부터 전해 오는대로 총각김치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였다.

계속하여 갑자지침을 비롯한 지침류들과 여러 음식들을 일일이 보아하신 그이께서는 전골앞에 이르시여 전골은 어떻게 먹는가고, 맹물을 두고 끓이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전골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민속 음식인데 그것을 봉사할 때 전

끌감과 고기국물을 손님들에게 따로따로 내주어 그들이 그것을 자체로 끓여먹게 하고 있으면 좋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여러 료리들을 보아주시며 료리가공법과 상차림방법까지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크지 않은 음식이름의 유래 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음식이름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교시에는 민족 음식을 더 잘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음식을 하나 해먹어도

주체98(2009)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생산현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의 청에 의해 공장구내식당으로 걸음을 옮기게 되시였다.

식당안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콩농사를 잘해서로 동자들에게 콩기름과 두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콩음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콩에서 기름을 짜낸 다음 콩깨묵으로 만든

인조고기를 보시며 이것은 매우 좋은 식료가공품의 일종이라고, 기름을 뽑았으니 지방질은 좀 적지만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콩음식의 일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는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가공하여 먹는가고 물으시였다.

동행한 한 일군이 물에 불구었다가 볶아서도 먹고 메워서도 먹으며 그대로 먹어도 좋다고 보고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하신 어조로 이런것을 많이 만들어로동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배려하여주신 땅에서 콩농사를 잘하여 이런 덕을 보고있다니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로동자들의 식생활향상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음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민족음식소개판에 이르시여 소개된 음식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고나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음식을 하나 해먹어도 민족성과 주체성을 살려 민족음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무시할수 없는 민족음식



오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민족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일떠서고 그곳에서 민족 음식을 즐겨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할 때면 나는 가슴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료리부문에서 한생을 보내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지금 세계에는 200여개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며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서방식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여 민족성을 잃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민족음식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민족음식을 무시하면 민족적인 식생활 풍습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민족적 전통을, 민족성을 잊을수 있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는데서뿐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환경과 조건, 체질과 구미에 맞는 고유한 민족음식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오랜 역사적과정을 통하여 발전풍부화되어온 민족음식들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조선사람의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 특성들이 진하게 반영되어있다.

신선로, 평양랭면, 김치와 같은 민족음식들은 그 맛과 향기, 모양과 색깔이 독특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한 민족 음식이 해방전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하여 그 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여왔다. 그러다보니 해방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먹던 민족음식들이 많이 없어졌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우리의 민족음식이 자기 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민족 음식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여 오랜 전통을 가진 민족음식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민족음식의 가공방법과 음식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와 조미료, 음식을 담는 그릇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며 민족음식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신선로와 평양랭면을 비롯한 민족음식들이 세상사람들의 좋 은 평가를 받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도 민족음식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기에 오늘 조국에서는 선조들이 이룩한 우수한 음식문화가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개화발전되고있다.

료리부문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료리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협회에서는 료리축전과 강습, 경연, 료리품평회 같은것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민족요리를 발전시키는데서 도별로 자기 지방토배기료리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이 과정에 많은 료리들이 새로 발굴되였으며 명료리로 등록되었다.

료리가공기술과 식료가공기술도 날을 따라 발전하고있다.

조선음식은 생신하고 감칠맛이 있으며 먹음직하고 향기로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협회일군들은 각지에 내려가 민족음식의 특성을 살리도록 기술적지도를 주고있다. 그럴수록 민족음식을 배우려는 열의도 높아지고있다.

나는 료리부문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꽂피워나가겠다.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영훈

향상되는 우리의 민족음식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장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형성된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은 조선사람의 체질과 구미, 기호에 맞는 고유한 민족음식에도 깃들어있다.

오늘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크고작은 식당들에서는 평양랭면, 고기쟁반국수, 신선로, 온반, 농마국수, 대동강승어국, 단고기료리, 록두지짐 등 민족음식들을 특색있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 그리고 매 가정에서는 민속명절들뿐아니라 여느날에도 국수, 멱, 김치, 도라지무침을 비롯한 갖가지 민족음식들을 즐겨 만들어먹으며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가고있다.

우리 민족음식은 산뜻하고 달콤한 맛, 얼큰하고 구수한 맛과 함께 냄새가 향기롭고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와 누구나 입맛이 당기게 하고 미학적기호에도 잘 맞는것으로 하여 외국사람들까지도 한번

맛을 들이면 도저히 떼기 힘들다고 한다.

조국에서는 도처에 기초식품공장, 수산사업소, 데지공장, 메기공장, 버섯공장, 미꾸라지양식장, 김치공장과 남새온실, 식당, 봉사당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어 민족음식을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도대도 튼튼히 갖추어지고있다.

그런가 하면 료리도서들과 료리만들기다매체편집물들도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식당들사이의 경쟁이 벌어지고 가정들에서도 손쉽게 만들어먹을 수 있어 음식문화가 지역적제한을 받지 않고 고르롭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음식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고 해마다 진행되는 태양절료리축전과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뿐아니라 국수, 막걸리, 감자, 강냉이, 도루묵기 등을 가지고 료리경연도 자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러한 과정에 새로운 민족음식들이 창조되고 식당들사이, 료리사들사이, 가정부인들사이에 료리기술과 경험의 활발히 교환됨으로써 민족음식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되었다.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부장 조영은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는데서뿐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라고

해마다 각종 료리축전들과 료리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민족음식을 늘 맛있게 만들어먹는다.



김치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된 류경김치공장

민족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하고 있는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학생들

말하고 있다.

별씨 오래전부터 민족요리를 발전시키는 것을 단순한 실무적 문제로가 아니라 민족성을 옹호하고자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조선요리의 우수한 전통을 살리고 그것을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개성추어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조국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다.

주체61(1972)년 9월 개성시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지방마다 특산물과 특식들이 다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적극 찾아내여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를 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개성에서 오래 살아온 로인들을 만나시

여 이 고장의 특산물과 특식에 대하여 친히 알아보시는 과정에 개성지방의 고유한 특식은 두부에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추어탕이라는 것을 확인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개성사람들이 만들어먹던 이러한 특식을 다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남산기슭에 식당을 하나 새로 꾸려 추어탕을 만들어 팔아주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송어랭수탕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음식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그 레시피까지 친히 가르쳐주시였을뿐 아니라 평양랭면을 봉사하는 옥류관과 같은 훌륭한 식당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우리의 민족요리를 세계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레시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쓰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의 레시피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원래 조선요리는 다른 나라 레시피보다 우월하다고,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은 조선사람의 민족적 특성과 구미에 맞는 민족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맛과 냄새, 색갈이 독특하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음식은 밥, 국수, 떡을 비롯한 주식물류와 국, 찌개, 튀기, 뷔음을 비롯한 부식물류 그리고 식혜와 수정파, 화채를 비롯한 음료류,

약파와 강정을 비롯한 당파류로 구분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닭인삼찜, 형태와 색갈이 다른 여러 가지 떡, 평양랭면, 약밥, 소갈비국, 숭어찜,

보쌈김치 같은 특색있는 조선요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특히 평양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음식인 평양랭면의 진미를 살리기 위해서만도 참으로 끝없는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랭면 하나를 통해서도 민족음식의 고유한 전통을 살려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치고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만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 차례나 옥류관을 찾으시여 친히 국수를 맛보시면서 국수의 진맛을 돋구는 비결도 가르쳐주시였다.

옥류관과 청류관, 평양면옥, 평남면옥을 비롯한 이름있는 식당들에서 조국인민들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평양랭면과 옛날 궁중음식이었던 어부쟁반국수 못지 않은 고기쟁반국수도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 속에 태여난 것이다.

몇 해 전 우리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던 중국연변조선족요리협회 회장 김순우동포는 태양절료리축전장을 돌아보고 이런 말을 남기였다.

『나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서 이름난 음식들을 다 맛보았지만 그 맛과 향기, 영양학적 가치에 있어서 조선민족음식에는 대비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조선민족음식에 대한 남다른 우월감을 안고 10여년간 협회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고국에서 이처럼 민족음식이 계승발전되어나가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끝없이 향상되고 있는 우리의 민족음식을 놓고 나는 놀라움에 앞서 민족적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민족적인 맛과 향기 넘치는 료리경연

조국에서는 년중 제일 더운 삼복철이 오면 어느 가정, 어느 식당 할것없이 단고기장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이 시기에 단고기장을 먹는 것은 조선인민의 고유한 풍습이다.

조선효리협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삼복철의 중복을 계기로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을 조직진행하여 료리사들이 서로 경험을 교환하게 하고 주부들에게도 배워주고 있다.

올해의 경연은 혁명거리에 있는 료리축전장에서 진행되었다.

경연장에는 부문별, 지역별 예선경연에서 선발된 료리사들이 현장에서 지정된 시간안에 만들어 출품한 단고기장과 단고기료리들이 전시되었다.

성의껏 만든 단고기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평양단고기집의 단고기장이었다. 여러 차례나 경연에서 1등을 한 이 식당 지배인 박혜영의 말에 의하면 자기 식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토법을 잘 살려 단고기장과 단고기갈비찜, 단고기다리찜 등 여리가지 료리들을 만들며 특히 조경숙료리사가 만든 단고기갈비찜은 그 맛과 색깔이 독특하여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동의보감》, 《동국세시기》, 《고려사》,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책들에는 단고기의 효능과 가공방법, 그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과 일화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단고기의 영양가는 소고기와 비

교할만큼 좋다, 몸이 허약할 때, 위가 약할 때, 허리와 다리가 쑤시고 아프며 손발이 찰 때, 유뇨증과 새벽설사를 할 때 단고기를 몇 번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각 도에서 온 료리사들이 만든 단고기장과 단고기료리도 자기 지방의 특색을 살린 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평안남도에서 온 윤금희는 경연에서 특등을 한 료리사들에게서 료리가공기술을 많이 터득했다고 하면서 다음번 경연에서는 자기네 식당이 꼭 우승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조선효리협회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영일은 《이 경연을 통해 여러 식당의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의 남모르는 계주가 진행되었다. 온 나라녀성들이 민족적인 맛과 향기, 전통과 풍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때 조국땅은 어디 가나 민족적 향취로 차고 넘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단고기찜



단고기내포볶음



단고기갈비찜



단고기장



단고기료리경연을 통해 경험을 나눈다.

녀성료리사들의 열정이 날은 열매

조국에는 민족음식발전에 온 넋을 바쳐가는 녀성료리사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들중의 일부를 소개한다.



강경실(오른쪽)

《정성을 바쳐야 한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전통적인 민족음식의 하나인 평양랭면, 그 하나를 위해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료리사가 있다. 그는 옥류관 주방장 강경실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듯 료리사도 료리에 정성을 바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강경실의 이 말에는 그의 30년간의 근무생활이 비껴있다고 말할수 있다.

처녀시절부터 료리사로 일한 그는 평양랭면의 맛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물론 그 료리가 공법이 표준화 되어있지만 어떤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는가에 따라 국수가 제맛을 살릴수도 있고 살리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반죽으로부터 국수사리를 담을 때까지의 매 공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면 질이 떨어지고 높아지는가를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수에서 기본인 육수의 맛을 살리기 위해 선배료리사들에게서 밤늦게까지 배우기도 하고 실지 해보기도 하며 애를 썼다.

그러나 모든 일이 옥

망처럼 되는것은 아니였다. 어

떤 때에는 계절변화와 날씨조건 등에 따라 국수사리색과 맛이 달라질 때도 있었다. 그는 사색끝에 국수의 맛과 색을 살리는데서 온도, 시간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찾게 되었으며 그것을 과학화할 결심을 품게 되었다. 비록 료리사였지만 그는 민족음식의 고유한 맛을 살려 그 전통을 빛내이고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치며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만하게 하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바치였다.

그의 노력에 의하여 반죽온도, 국수사리익힘시간 등 매 공정들에 제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보기들이 설치되게 되고 그로 하여 평양랭면의 맛이 더욱 좋았지게 되였다.

그의 창의 고안은 제20차 태양절료리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신선로 료리사입니다》

《놋그릇 가운데서 파란 불길이 솟구쳐오르고 그 두리에 고운 색갈의 음식감들이 무지개처럼, 어찌 보면 한멸기의 꽃송이처럼 장식되어 보기만 해도 구미를 돋구는 신선로! 신선로야말로 조선음식의 감미로운 맛과 구수하고 향기로운 맛을 다같이 맛볼수 있게 하는 독특한 조선의 명료리이다.》



림명옥

이것은 청류관에서 신선로를 맛본 한 외국인이 한 말이다.

그러한 신선로를 더 잘 만들기 위해 애쓰는 료리사들중에는 청류관 료리사 림명옥도 있다.

림명옥은 어릴 때부터 신선로료리사가 되는것이 꿈이였다 고 한다.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에도 여가시간이면 동무들에게 신선로의 유래와 만드는 방법 등을 이야기해주어 신선로박식가로 불리웠다. 제대되어 청류관의 조리사가 된 그는 경험있는 료리사들에게서 칼질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초대지지기 등에 이르기까지 신선로료리의 기초기술을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밤마다 배운것을 반복해보았지만 눈에 익고 손에는 설다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무지개처럼 아롱다롱곱게 배열되는 초대지지기는 정말 힘들었다.

그는 퇴근해서도 초대지지기련습을 부지런히 하였다.

료리사가 된 후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하루가 다르게 그의 료리솜씨는 달라졌다. 그 날날 그는 신선로의 맛은 불조절과 국물에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불조절의 묘리를 터득하고 국물에 따라 음식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을 알아보며 그가 바친 노력이 그 얼마나 모른다.

그 노력이 결국 알찬 열매를 맺었다.

그가 만든 신선로료리는 사

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전국료리기술경연과 태양절료리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

소학교에 다니는 그의 딸 박림해는 어머니가 탄 상장과 금메달 등을 자랑으로 여기며 늘 동무들과 선생님들에게 《우리 엄마는 신선로료리사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료리명수

체육선수들에게 명수급이 있듯이 료리사들에게도 명수급이 있다.

대동강구역종합식당 청류식당 책임자 손혜영은 료리명수이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그는 봉사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민족료리에 정통하였다. 한마디로 민족음식에 박식하고 그 료리기술수준이 높다.

그것은 그의 탐구심과 열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실지 그는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하는 경연이나 축전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출품된 매 료리들의 유래와 원자재, 비법 등을 하더라도 더 파악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리고 료리를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한번은 그가 태양절료리축전에 민족음료인 수정파와 화채를 전시한적이 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맛본 사람마다 맛이



료리축전에서 1등을 하고 딸의 축하를 받는 손혜영

독특하고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늘 여가시간이면 남편과 딸과 함께 박물관들에 가보곤 한다. 거기에서 그는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빛내이겠는가 하는것을 모색하곤 한다.

그 과정에 그는 은이버섯과 이랭채라는 료리도 새롭게 창안하여 조선명료리로 등록되게 하였으며 식당은 이름난 식당료리등록증을 받았다.

혜영은 주체97(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태양절료리축전들에서 여러차례나 1등을 하여 금메달을 받았다.

어머니처럼 음식을 잘하는 그의 딸 김달미는 해마다 어머니날이 오면 제가 만든 풍성한 민족음식들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있다.

그럴 때면 손혜영은 더없는 기쁨을 느끼곤 한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한가정의 식탁은 크지 않아도

평천구역 미래동 61인민반 5층 4호세대는 민족음식을 특별히 즐겨먹는 가정이다.

박사 부교수이며 장철구평양 상업종합대학 급양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세대주 최병각은 근 30년간 안해가 정성들여 만든 민족음식을 즐겨먹고 있다.

1년 365일 이 가정의 식탁우에는 언제나 민족음식들이 오르군 한다.

봄에는 냉이국, 달래김치, 여름에는 단고기장, 가을에는 추어탕, 겨울에는 동지죽, 통배추김치, 깍두기 등 계절에 따르는 민족음식들이 올랐으며 민속명절 날들에는 떡이며 록두지침이 빠진 적 없었다.

가정주부인 리명희녀성은 가끔 주위 사람들이 료리박사선생과 살면서 세상의 모든 료리를 다 맛보았을 것이라고 말할 때면 머리를 가볍게 저으며 《자기



나라의 우수한 민족음식을 두고 왜 남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먹겠어요?》라고 말하곤 한다.

리명희녀성은 조선민족료리와 관련한 도서들을 보는 과정에 사계절에 따르는 민족음식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조리방법들도 터득하게 되었다.

급양학을 전공한 최병각에게 있어서 영양가가 높고 맛과 향기가 독특한 민족음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더욱 각별하였다.

최병각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민족료리는 그 맛과 냄새, 색갈에 있어서 입맛을 한층 돋구어주고 만드는 원리가 과학적일뿐 아니라 약리적 가치도 매우 높다. 나는 학생들에게 외국료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조선사람에게는 뭐니뭐니해도 토장국, 밥, 김치, 콩나물, 단고기장과 같은 민족음식이 제

일이다.》

그는 식사때면 안해가 성의껏 준비한 민족음식을 차려놓고 맛나게 들면서 《여보, 당신이 담근 김치맛이 제일이요.》, 《오늘 토장국이 정말 구수하구만.》라고 말하며 만족해하고 있다.

이렇게 한가정의 식탁은 크지 않아도 민족음식을 늘 즐겨먹으며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최병각세대와 같은 조국인민들의 생활속에서 애국이 짹드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1930년 여름

엠엘파계렬의 종파분자들은 5. 30폭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930년 8월 1일 국제반전일을 전후하여 길돈철도연선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무모한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염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5. 30폭동후 지하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얼마 되지 않은 조직들마저 적들앞에로 출되였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 사방으로 다니면서 가까스로 수습해놓았던 조직들도 재차 타격을 받고 파괴되었다. 만주각지에서 우수한 지도핵심들이 무리로 붙잡혀 처형되였다. 적들은 공산주의를 혈뜯고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구실을 얻게 되였다.

이 폭동이 일제의 민족리간책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두차례의 폭동때문에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앞에서 그만 신용을 다 잃었다. 그후 우리는 유격투쟁을 통하여 그 신용을 힘들게 회복하였다.

동만의 조선사람들은 8. 1폭동까지 겪고나서 좌경모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것을 점차 심각히 깨닫기 시작했으며 대중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보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불신과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되였다.

우리는 지체없이 폭동이 휩쓸 지역들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혁명군중이 종파분자들의 선동에 더는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나도 길림을 거쳐 돈화쪽에 가서 얼마동안 조직을 수습할 작정이였다.

길림에 가니 거기도 5. 30폭동직후처럼 분위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변장을 해가며 조직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였다.

길림의 역과 성문, 도로교차점들이 모두 적들의 검문초소로 되고 있었다. 일본령사관 밀정들도 거리를 쌔다니면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

였다. 민족주의운동이 막판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시기여서 적들도 이무렵에 와서는 안창호사건때와 같이 독립군령감들의 뒤를 쫓아다니지 않고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잡으려고 곳곳에 그물을 쳤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끓어번지던 길림시내에서 오늘은 낮익은 얼굴들을 찾아보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에 분하고 원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동무들은 나와 헤어질 때 길림에 들리더라도 오래 지체하지 말고 인차 해통이나 청원 같은 곳으로 가라고 권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길림을 쉽사리 떠날수는 없었다. 혁명을 새롭게 개척해보겠다고 만 3년동안이나 낮에 밤을 이어가며 심혈을 바치던 생각을 하면 다른 고장으로 선뜻 발길을 돌리게 되지 않았다. 내가 길림에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혁명을 위해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도시에 그처럼 큰 애착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심혼을 바친것만큼 그 고장을 사랑하는 법이다.

다행히도 공청사업을 하던 동무를 만나 몇몇 조직성원들의 행적을 알아낼수 있었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다놓고 적들앞에 조직성원들을 더는 로출시키지 말며 길림소년회나 류길학우회와 같은 합법적조직들도 당분간 지하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카륜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의논하였다. 파악이 있는 동무들에게는 혁명조직들을 수습할데 대한 임무를 주어 활동지역들에 떠나보냈다.

나도 길림을 떠날 결심이였다. 내앞에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길림의 일을 대강 수습해놓고나니 동만쪽으로 나가면서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하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나는 청원이나 해통쪽에 가서 당분간 중국동무들의 집에 숨어있다가 적들의 피해를 많이 받

은 고장들을 돌아다니며 폭동의 후파를 가셔 볼 생각이었다. 해룡과 청원방면에 가면 카륜회의가 있은 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최창걸이와도 련계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남만으로 가는 통로도 개척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 일대는 류하와 함께 최창걸의 활동구역이였다.

최창걸은 류하, 해룡, 청원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기총당조직을 내오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조직들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혁명운동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결로 심한 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때에 8. 1폭동의 여파까지 미쳐와 혁명조직들이 무더기로 파괴되었다.

해룡과 청원사이에는 내가 잘 아는 길림시절의 동창생이 한명 있었다. 유격대초창기 우리 부대에 있다가 남만원정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간 중국동무였다. 그 동무의 집에 얼마동안 가있으면 그사이에 백색테로선풍도 좀 가라앉을것 같고 그러면 나도 위험한 고비를 무난히 넘길수 있을것 같았다.

길림을 떠나는 날 몇몇 너동무들이 역에서 나를 전송하였다. 부자집 따님들처럼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 바래주다니니 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난히 차에 오를수 있었다. 군벌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신사들이 공산주의운동 같은것은 하지 않는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길림본역에서 차를 타지 않고 적들의 경계가 덜 미치는 변두리역에서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칸에서 뜻밖에도 장율화를 만났다.

장율화는 심양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심양으로 가기 전에 혁명할 길이 없겠는가 의논하려고 나를 찾아 길림에 갔던것인데 가보니 살풍경이더라는것이였다. 『알만 한 조선사람들은 다 숨고 눈에 보이는것은 군경이 아니면 왜놈 개들뿐이더라. 성주를 만나려 갔는데 만날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심양으로 가는 길이다.』 하면서 나를 다짜고짜 자기가 자리잡은 1등칸으로 데리고갔다. 그도 내가 태로를 피해 숨어다니는 몸이라는것을 짐작하고있은것 같았다.

그날따라 순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였다. 출입문이란 출입문은 모조리 봉쇄

해놓고 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조사하였으며 어떤 승객들에 대해서는 소지품과 보따리까지도 사정없이 뒤져보았다. 검표원들도 그날은 다른 때보다 류달리 엄격하게 차표조사를 하였다. 8. 1폭동의 후유증이 도시나 촌락뿐 아니라 렐차에까지 미치고있었다.

장율화의 도움으로 나는 해룡역까지 무사히 갈수 있었다. 순사들이 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살벌하게 하였지만 중국신사복을 쭉 뽑아입은 장율화한테는 감히 말도 걸지 못하였다. 나도 장율화와 같이 앉아있다니니 순사들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표원들은 차표조사를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차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리였다. 장율화의 배경때문이였을것이다.

내 품에는 그때 문건도 있었고 비밀자료들도 있었다. 경찰이 몸을 수색하게 되면 나도 무사할수 없었다.

해룡역에 도착하니 흠파 개찰구옆에 일본령사관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있는 광경이 보이였다. 나는 륙감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는것을 느꼈다.

해룡역에 있는 적이 일본경찰들이라고 생각하니 신경이 뭍시 날카로와졌다. 중국의 순사나 일본순사나 다 같은 순사이지만 일본순사들에게 걸려들면 더 용수가 없었다. 만주에서 조선혁명가들을 불잡기만 하면 사정없이 국내로 압송하거나 관동도독부법원들에서 재판을 하여 려순, 대련, 길림 등지에 있는 감옥들에 마구 잡아넣을 때였다.

내가 어떻게 할지 결심을 못하고 물끄러미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을 때 장율화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였다. 같이 가서 아버지도 만나보고 자기의 장래문제도 의논해보자는것이였다.

나는 원래 초시역에서 차를 내려 목적지까지 가려고 계획하였다. 초시역으로 가자면 다섯정 거장인가 여섯정거장 더 가야 하였다. 장율화가 해룡역에서 내리게 되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지므로 뜻밖의 위험이 조성될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경제개발구에서의 특혜적인 세무제도

조국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국가가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모든 기업들에게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취하는 여러가지 우대적이며 유리한 법적조치이다.

조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민들에게 베푸는 사회주의적시책의 하나로서 인민들의 세기적원한이 뿌리깊이 스며있는 세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이나 외국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국에서는 특혜적인 세무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가 장려하는 대상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세금을 우선적으로 감면시켜주고있다.

국가는 외국투자와 관련한 법과 규정들에 첨단 과학기술부문, 현대적인 하부구조건설부문, 새로운 과학기술개발부문, 국내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생산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며 감소시켜주도록 규제하였다.

상업, 금양, 오락, 편의업과 같이 개발구를 활성화하는데서 부차적의의를 가지거나 아무런 의의가 없는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현재의 14%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15~19%범위에서 세률을 정하여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대한 세금특혜로 입은 세금손실을 보상할수 있게 하였다. 15~19%의 세률은 다른 나라들의 세율과 대비해볼 때 그리 높지 않다.

경제개발구에 거주,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지대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이곳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해외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출국수속을 할뿐 아니라 외국투자기업이 기업명칭을 변경시키거나 경영장소를 바꾸며 통합 및 분할하려 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한 기간내에 세무기관에 가서 필요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국에서는 또한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구에서 세무봉사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제개발구에서 진행하고있는 세무봉사에는 납세의무자들이 해당 기간에 얻은 수입과 공제 및

면세액을 전화를 통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납세액을 계산해주는 전화신고봉사, 은행돈자리환치에 의한 세무봉사, 24시간 무료자동전화안내봉사가 있다.

조국에서는 특혜적인 세무제도확립을 위하여 국제적인 세무관례에 따라 세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의 근거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어떤 리득이 생겨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자는데 있는것만큼 아무런 리득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세금부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된다.

국제세무관례상으로 놓고보면 수입을 얻기 위한 지출은 수입에서 공제할수 있지만 자본축적을 위한 지출은 공제할수 없다.

조국에서는 제품원가계산방법을 국제세무관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식대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원가비용평가문제에서 비용이나 손실을 수입 또는 리윤에서 제멋대로 공제하지 않도록 공제조항을 규범화하였다.

세금법과 규정에는 수입에서 공제할수 있는 비용항목들과 리윤에서 공제할수 있는 손실항목들이 명백히 규제되어있는것만큼 납세의무자들이 자기의 피해관계로부터 국가의 법과 규정을 어기고 비용이나 손실을 제멋대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납세의무자들은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나 손실만을 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의 새끼회사와 같은 협판기업들이 지출한 비용은 납세의무자의 수입에서 공제할수 없다.

또한 당해년도에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과 함께 오직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만을 공제하도록 하며 납세의무자가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개인적성격을 띠는 비용은 기업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본적인 성격을 띠는 비용이나 손실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국의 경제개발구들에서 실시되고있는 특혜적인 세무제도는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국제적요구를 옳게 부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투자기의 기업활동을 적극 추동하게 될것이다.

인민경제대학 교원 리현철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

석탄증산을 과고친다

인민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봉을 맡고 있는 석탄생산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그 투쟁의 앞장에서 룽등탄광의 탄부들이 기세 좋게 내달리고 있다.

탄광에서는 강원도정신창조 자들의 호소에 화답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모두가 혁신자가 되여 뜻뜻이 맞이 할 의지를 안고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막장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리는 한편 현장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어 탄부들의 드높은 열의가 그대로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운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라는 것을 명심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굴진공들과의 사업, 운반공들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전차와 탄차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실속있게 하도록 실질적인 방조를 주고 있다.

탄광의 책임일군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이 날뛰며 그 무슨 <제재> 요 뭐요 해도 우리는 조금도 걱정이 없다. 그 <제재> 보따리들을 폭파해버리며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석탄생산을 얼마든지 늘여나갈수있다. 하기에 우리 탄광에서는 대중의 정신력, 과학기술력을 틀어쥐고 기술혁신과 창의고안과제들을 바로 정하고 굴진과 채탄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생산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자체의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공구와 지구,

부속품들을 그흔히 마련하여 채굴 및 채탄, 운반설비수리에서 큰 은을 내게 하고 있으며 후방기지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꾸려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주고 있다.

직장장 정문범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쟁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는데 화력을 집중하면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하루하루를 최고의 실적, 최상의 성과로 빛내여 나갈 것이다.》

글 본사기자 최은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도입하여



질좋은 탄발을 개발하고



석탄산이 높아간다.

다시 그린 천망도

해마다 금성식료공장에서는 2~3t의 감을 수확하고 있다.

크지 않은 식료공장이지만 구내에는 감나무만 하여도 450여 그루나 된다.

금성식료공장은 봄이면 사과꽃, 살구꽃, 복숭아꽃이 활짝 피여나 향기를 풍기고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여려가지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계획에 대하여 토론하는 일군들



파일을 따들일 뿐 아니라 겨울에는 사철푸른 바늘잎나무들이 설레이고 있다.

금성식료공장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딘 때는 구창호가 지배인으로 갓 배치되어왔던 지난 세기 90년대 말이었다.

그는 자기의 공장에 나무

를 심으리라 결심하고 첫 사업으로 평양에서 수백리나 떨어져 있는 강원도 안변군에 가서 수많은 감나무모들을 구해다가 종업원들과 함께 공장안의 빈땅들에 심었다. 그날 구창호와 종업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파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을 것을 계획하고 전망도까지 그리였다.

그들이 그린 전망도는 크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애국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더욱 푸르러질 조국의 한 부분이 비껴있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근

20년간 공장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식수를 진행하여 이제는 살구나무, 사과나무, 단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평양단풍나무를 비롯하여 50여종에 6 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심은 나무들을 정상적으로 애호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직장별로 인원수에 맞게 m^2 당 관리제를 실시하였다. 공장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매 사람이 수십 그루씩 맡아 나무들의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갔다.

그 과정에 공장에서는 대담하게 묘목장도 꾸려놓고 자체로 씨를 받아 나무모를 생산해 냄으로써 양묘는 전문생산

단위에서만 할 수 있다던 판념을 완전히 털어버리였다.

올해 가을 공장에서는 퇴화된 나무들을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교체할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공장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전망도를 다시 그리였다.

지배인 구창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 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가꿀 때 움더나게 되고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마음도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마다에 땀보다 먼저 애국의 마음을 묻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간성춘예집》

『간성춘예집』은 19세기초에 김려가 창작한 작품들을 묶은 시집으로서 『담정유고』에 실려 있다.

시집은 『황성리곡』과 『상원리곡』 두개 편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30수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이 따로 없으며 매 작품뒤에 그 제재로 된 사건과 사실들을 주석의 형태로 써놓았다.

우선 상편인 『황성리곡』은 시인이 련산현감으로 있을 때 (1817년-1819년)에 그곳 인민들의 생활과 풍습 및 자신의 체험을 주제와 소재로 하여 짚은 7언 절구시 195수와 현감벼슬을 그만둔 직후에 쓴 10수의 절구시들을 합쳐서 205수로 엮어져 있다. 하편인 『상원리곡』은 호두까기, 약밥지어먹기, 널뛰기, 더위팔기, 연띄우기, 쥐불놀이 등 정월대보름날의 민속놀이에 대하여 짚은 25수의 시로 엮어진 시초이다.

『간성춘예집』에 실린 작품들은 주제사상적 내용이 다양하고 민요적인 정서가 짙은 것이 특징적이다.

시집에 실린 작품들 가운데서 가치있고 의의있는 것은 당시 전라도지방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와 그들의 원망을 담은 작품들이다.

시집은 김려의 진보적인 사상 경향과 시문학의 사상예술적 특성을 보여줄뿐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풍습과 민속놀이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 * *

로동이후의 문화정서생활



하루일을 끝마치고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대동강축전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하루일을 마친 후와 휴식일이나 명절날이면 축구, 배구, 탁구, 윷놀이, 장기경기로 온 공장이 떠들썩해진다. 주목되는 점은 이 사업의 앞장에 공장일군들이 서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공장을 찾았을 때에도 운동장에서는 수지합직장 대 조립직장의 축구경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수지합직장의 주요공격수로는 공장의 일군인 원철과 기사장 김성철이 활약하고 있었고 조립직장에서는 공격수인 부지배인 신기선과 몇명의 과장들이 맹렬히 뛰면서 상대방의 꼴문을 위협하고 있었다. 각팀에는 20~30살 안팎의 청년들과 대조되게 60을 넘긴 직장장들도 있어 더욱 판심을 끌었다. 응원 또한 열광적이였다.

전반전이 끝난 후 우리와 만난 부지배인은 두 직장사이의 경기는 매번 승부가 잘 나지 않아 11m차기를 하군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그러한 승벽심은 배구, 탁구경기장에서도, 『장훈, 명훈이야-』 하며 서로서로 승패를 겨루는 장기판에서도 그리고 『모-, 숭-』 하는 윷놀이 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만난 공장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경기들에 축구

경기에 참가한 공장일군들까지 참가하였더라면 지금보다 경기가 더 불만하고 치열하였을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만큼 이곳 공장의 일군들은 모든 체육종목들은 물론 장기나 오락 경기에 이르기까지 선수로 출전하여 대중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공장의 문화후생시설인 축전지원에서의 생활 또한 량만적

이고 정서적이였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경기장에서 치렬한 공방전을 벌렸던 그들이 언제 그랬느냐싶게 서로 한데 어울려 편의봉사시설들을 리용하며 피로를 풀고있었다.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전당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을 열람도 하고 새 기술에 대한 토론을 하며 경험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 속에는 축구경기장에서 보았던 수지합직장 직장장 김영철도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축구경기에서 한알 차이로 이겨 기쁘긴 하지만 자기는 어느 팀이 이기는가지는가 하는것보다는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로 하여 종업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체력이 증진될뿐 아니라 선진과학기술을 더 깊이 습득하게 되

며 그것이 곧 공장의 생산성파로 이어지는것이 더 기쁘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실지 직장에서는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종업원들이 많이 배출되고 직장자체가 올해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설비관리와 직장안팎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앞장설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문화정서생활로 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 공장 종업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으며 앞으로 공장의 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휴식일이나 명절날이면 여러가지 체육경기로 온 공장이 떠들썩해진다.



우리가 만난 휴양생들

우리는 얼마전 근로자들의 휴양이 한창인 묘향산휴양소를 찾았다.

조선식건축물로 이채를 띤 이곳에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 방금 등산을 끝낸 휴양생들이 빼스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속에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과 로인, 어린이들도 있었다.

우리와 만난 평양시 중구역 오탄동의 박후남로인은 가족 휴양을 왔는데 자기는 여든살을 가까이 하지만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묘향산등산까지

하고 온다고 하면서 래일은 일파대로 롱문대굴에도 가볼 결심이라고 하는것이었다. 그러면서 로인은 훌륭한 침실조건과 함께 끼마다 푸짐한 식사를 마련해주고 불편해 할세라 앓을 세라 봉사원들과 의사선생님들이 친절히 돌보아주니 한 10년은 짧어지는듯싶다고, 내 나이에도 무엇이든 다 할것 같다고 이야기하는것이었다.

그들과 헤여진 우리는 휴양생들의 침실, 식당, 도서열람실, 종합오락실 등이 구색이 맞게 배치되어있는 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공장과 농촌, 연구소 등 여러 부문의 근로자들이 이곳으로 오는데 한기에 100명정도의 휴양생들을 받는다는 한련희 소장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휴양생들의 호실부터 찾았다. 1층 2호실에서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온 손경일일행과 순천편직공장에서 온 리혜영일행이 한창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자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휴양소를 훌륭히 지어주고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해주니 정말 좋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리혜영은 휴양소에 와서 생일을 맞았는데 이곳에서 차려준 생일상과 휴양생들의 성의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찾은 도서열람실에서는 휴양생들이 서로 자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휴양소가 그저 휴양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사업경험을 교환하고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조용히 도서열람실을 나온 우리는 휴양소의 물놀이장으로 향하였다.

물놀이장에서의 휴양생들의 모습이 아주 불만 하였다. 저저마다 물미끄럼대를 타고내리는가 하면 승벽내기로 헤엄솜씨를 겨루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쏠아지는 덕수를 맞은 후에는 솔잎습식한중간에 들어가 땀을 내고 다시 물속에 뛰여들며 좋아라 환성을 터치는것이였다.

운동장에서는 배구경기가 한창이였다. 한창 자기 팀을 응원하던 한 청년은 우리에게 자기는 재령군 부지협동농장에서 온 장성호라고 하면서 이제 경기가 끝나면 모두 청천강에 나가 배도 타고 물놀이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이지 휴양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

는 휴양의 나날속에는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숨배여있습니다.》

그는 농장에 돌아가면 맡은 일을 더 잘해갈 결의도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휴양생들의 모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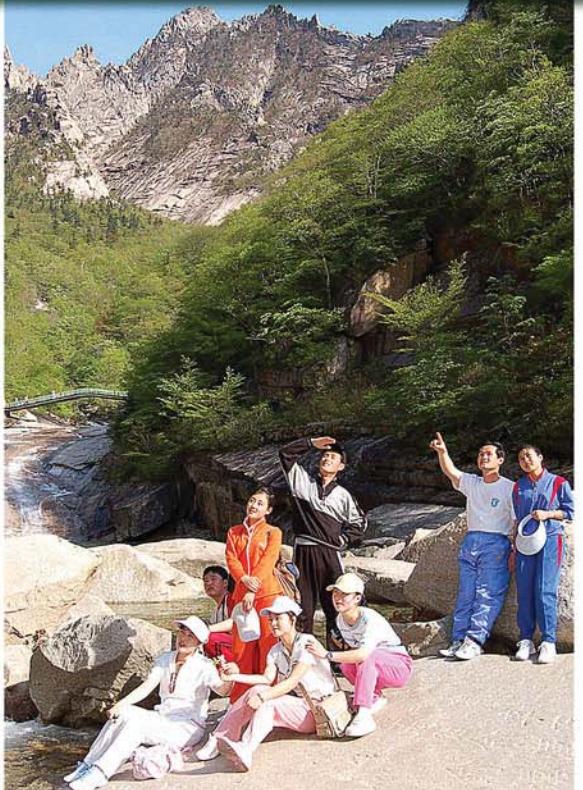
평범한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나라의 혜택에 대해서와 그에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가는것으로 보답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묘향산등산길
에서



실내물놀이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휴양생들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련못동지구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았다.
공원에는 교통안전교육관과 야외교통안전실습장이 있다.



장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교통안전교육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拙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자동차형식의 교통안전교육관은 두개의 층으로 된 건물로서 걸만 보고도 교통공원특유의 멋이 풍기는데 내부 또한 독특하고 홀륭하였다.

교통안전교육을 주는 방들이라든가 교통안전 규정과 상식들을 통속적으로 보여주는 만화그림들로 차있는 복도, 우측통행질서를 말없이 알려주는 발자국이 또렷이 찍혀져있는 계단 등 교육관의 내부는 예술성과 실용성이 잘 조화되고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꾸려져 있었다.

시안의 거리와 도로의 구조물과 시설들을 축소하거나 모의하여 다양한 교통정황을 펼쳐놓은 야외교통안전실습장은 정말 흡잡을데가 없는 실습장이였다.

야외 교통안전실습장에는 지능계발구역, 유희놀이, 모래놀이터, 체력단련구

역 등으로 되어있으며 이밖에 완구상점과 청량음료점도 있었다.

이곳에는 1선, 2선, 3선도로들과 경사면도로, 자전거길, 차굴, 공중다리, 철길감시초소, 신호등, 각종 안내표식 등 교통안전시설들이 그拙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공원의 가는 곳마다 《자동차의 발전력사》, 《어린이교통사고요소》, 《교통신호등의 유래》, 《빨리 멈추자면?》 등의 물음판과 알림판들이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걸려있어 누구나 쉽게 교통규정과 상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교통공원관리소 소장은 혁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들이 여기 교통안전공원에서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보고 또 자기가 놀이자동차와 자전거를 타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교통규정을 공부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공원으로는 지금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찾아와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교육자부부



교수토론을 하고 있는 전자혁

조국에는 한생을 후대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

그들 속에는 높은 실력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전자혁, 장영숙 부부도 있다. 세대 주인 전자혁은 평양 컴퓨터 기술대학 학장이며 그의 안해 장영숙은 평양 출판인쇄 종합대학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책 공업 종합대학 체신학부의 같은 학급에서 공부한 그들은 주체 75(198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란히 교단에 섰다.

그들 부부와 동창생인 평양 출판인쇄 종합대학 강좌장 리광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학 시절 전자혁은 전자학 치분야에서 수재로 이름을 날렸고 장영숙은 이 악쟁이로 소문이 났다. 당시 그들은 학급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전파 목회 우등생이였고 학습에서 대단한 정열가들 이였다.》

따뜻한 해빛이 비쳐드는 창가에서 배움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다 바치려는 그들 부부의 마음은 하나였다. 공통된 그 지향에 의해 그들은 가정일은 물론 교수 교양방법 문제가 제기되면 네일 내일이 따로 없이 서로 도와주며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합쳐나갔다.

저녁 시간이면 의례히 《부부 협의회》를 여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활 일파로 되고 있다. 그들은 그날 사업 과정에 있었던 교훈적인 일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음 날 사업의 성과적 보장과 연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 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연구 과제는 마땅히 부부 공동의 과제로 전환되고 그 하나를 위해 서로 서로 더 좋은 착상을 내놓으며 거듭되는 토론과 협력 속에 충실히 무르익히고 있다.

어떤 때에는 서로의 주장으로 하여 혼쟁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 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교육방법과 연구사업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곤 한다.



강의를 진행하는 장영숙

실지 장영숙은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실리 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련이어 창조하고 가치 있는 수자회로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수자신호 처리 설계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대학적으로 손꼽히는 우수한 모범 교수자인 장영숙의 강의를 받은 학생들은 그의 깊은 지식과 폭넓은 상식에 매혹되어 그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강의를 받고 싶어 한다.

그에 대해 장영숙은 《새로운 교수방법》을 내놓고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서 세대 주의 학술적인 방조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교육과 컴퓨터 부문에서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전자혁 역시 대학의 과학연구

과장과 컴퓨터 기술 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당시 정보통신 리본부 문에서 실력이 높은 안해의 도움에 의해 과학 연구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화상 및 음성 처리 학과 목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그 과정에 많은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들로 키워냈고 우리식의 컴퓨터 조작 체계의 개발과 평양 가방 공장, 중앙 양묘장의 통합 생산 체계 확립에 기여한 것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의 현대화,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여 절세 위인들을 모시고 기념 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었다.

스승의 교육 성과를 축하하여



상식각공

각궁은 뼈, 참대, 뽕나무, 소힘줄, 갖풀 등과 같은 재료들을 합성하여 만든 활로서 후궁 또는 장궁이라고도 하였다.

고구려의 맥궁(고구려 활의 한 종류로서 고구려의 별종인 소수매 사람들이 이용한 활)과 같이 중세기에 이미 여러 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진 무기의 하나로서 당시 우리 나라 무장 편제에서 기본을 이루었다.

시울의 탄력성과 합성 재료들의 견인성이 대단히 강한 이 활은 고대로부터 근대에까지 전

투, 사냥, 경기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특히 고구려와 발해에서 많이 쓰이였다.

각궁은 고려 시기에 봉건 정부의 내궁 전교에서 만들었으며 조선 봉건 왕조 후기에는 상인 수공업 자들의 조직인 각궁계의 공인들과 중앙 정부의 수공업 관청인 상의원 소속 궁인들, 각 지방 외공장의 장인들이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개성 지방의 수공업자들이 만든 각궁이 가장 우수하였다.

* * *



교수토론은 가정에서도

그 나날 그들 부부는 학생들로부터 실력이 높은 교원, 배울 것이 많은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대학이 자랑하는 교원, 일군들로 되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그들 부부의 《협의회》에 식솔이 늘어났다. 몇 년 전 평양 컴퓨터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장철구 평양 상업 종합 대학 교원이 된 그들의 외동 딸 전현아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을 지켜 30여년, 누가 알 아주 건玷한 깨끗한 냥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길에서 뿌리가 되고 밀거름이 될 한마음으로 그들은 후대 교육 사업에 서로의 지혜와 정열을 합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인기있는 약품과 그 개발자들

우리 조국에서 리제드로나트교갑약과 졸레드론산주사약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되었던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도 역시 이 약품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리제드로나트교갑약은 파골세포에 의한 뼈흡수(파괴)를 억제하고 뼈재구축을 촉진하며 뼈밀도와 뼈세기를 증가시킴으로써 병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뼈손상과 뼈변형, 외파적인 뼈골절, 갱년기장애로 인한 뼈성김증과 관절염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약이다. 이 약의 개발후에 나온 졸레드론산주사약은 리제드로나트교갑약보다 약리활성이 보다 강하고 효능이 높은 뼈질환치료제로서 1년에 한대의 주사로 뼈성김증 특히 갱년기성뼈성김증을 완전히 치료하며 뼈의 변형을 막고 뼈세기를 높여주어 로년기골절위험성을 현저히 막아주는것과 함께 대퇴골두무균성뼈파사치료와 유선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뼈에로의 전 이를 예방치료할수 있는 특효약이다.

이 약품을 김일성종합대학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장영만과 이대학의 첨단과학기술교류사 부원 김성운이 힘을 합쳐 완성하였다.

처음 리제드로나트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한



새로운 의약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장영만(왼쪽)과 김성운(오른쪽)

사람은 연구사 장영만이였다. 당시 이 약의 합성기술은 몇개 나라의 첨단특허기술로 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특허기술은 그 어느 나라의 독점물이 아니며 반드시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그보다 월등하게 창조해놓을 결심을 안은 그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연구사업은 너무도 아름차고 어려웠지만 그는 난관이 부닥칠 때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개선해나가자면 꼭 약을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의지만을 가다듬으며 분발하였다.

때로는 부식성물질에 의해 건강이 나빠지고 위험한 실험을 거듭하느라 쓰러진적도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여 그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주체화된 리제드로나트합성기술을 완성하게 되였다. 약은 림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높다는것이 인정되었다.

뒤따라 그는 약품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 설비와 시약을 우리의 것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바로 이러한 때 장영만을 도와나서준 사람이 있었다. 같은



개발된 약품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큰 은을 내도록

우리가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민병원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는 병원의료일군들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한 청년이 퇴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에 대해 이곳 병원원장 한성국은 우리에게 청년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만 해도 부모들까지도 그가 더는 일어설 가망이 없다고 단정했지만 이제는 완쾌되어 제발로 걸어서 퇴원하고 있다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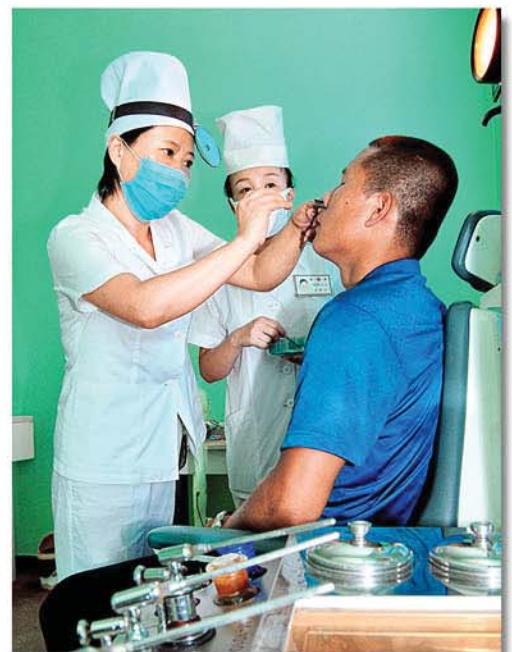
『다 인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며 병이 나도 돈 한푼 받지 않고 치료해주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안아온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민사랑의 결정체인 내각결정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데 판하여>가 채택된 때로부터 이제는 65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실지 우리 병원만 놓고보아도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

치게 하기 위해 의료봉사조건과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치료예방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병원내외부를 완전히 일신하였을뿐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치료설비들을 부단히 개선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렌트겐과 과장 윤성남파 의사 박현수가 개발한 렌트겐설비의 원격조종화는 렌트겐상에서의 경피적골접합수술을 실현시킴으로써 환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환자들을 위해 바치는 정성은 내파의사들속에서 크게 발휘되고 있었다. 그들은 열마전에도 사경에 처

한 환자를 구원하기 위한 20여 일간의 집중치료사업을 벌렸다고 한다. 사실 그때 환자의 상태가 너무도 위독하여 중앙병원으로 후송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과장 리홍렬과 주혜심



이비인후과 치료실에서

대학의 첨단기술교류사 부원 김성운이였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니 전진 속도는 그만큼 빨라졌다. 얼마후에 약품생산기지가 꾸려지고 자체로 개발한 설비와 시약에 의한 리제드로나트교갑약생산이 시작되게 되였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된 약품에 불결한 점이 있다 는것을 찾아쥐게 되였다.

장영만과 김성운은 인민들의 치료에 이용하게 될 약은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지혜를 합치고 연구를 거듭하여 끝내 결함을 퇴치하였다.

뒤이어 그들은 약리활성이 보다 높은 졸레드론산주사약개발에 진입하였으며 몇해 후에는 이

연구에서 또다시 성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로 하여 그들은 올해에 2. 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그보다 앞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리제드로나트의 합성 및 제제화와 그 리용기술을 개발한 그들에게 발명가증서와 금메달을 수여하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그들은 과학기술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해 갈 열의를 안고 이미 나온 제품보다 더 효능이 높은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탐구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을 비롯한 파의 의사, 간호원들은 뜨거운 정성을 기울인다면 환자를 얼마든지 치료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히며 치료사업에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 하루에도 여러번의 집중치료가 진행되고 여러가지 약들이 투입되었다.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너도나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자에게 보약들과 영양음식들도 성의껏 마련해주어 끝내는 환자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비인후과과장 최혜영을 비롯한 파의 의사들도 환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고 그에 맞는 치료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신의학과 고려치료를 배합하여 난치성질병치료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구급파 의사들 역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얼마전 인홍동에 사는 한원희녀성이 급병으로 쓰러졌을 때였다. 한달 음에 여성의 집으로 달려간 의



치료설비들을 간경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사 김원국은 환자가 간경변으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기도에 폐덩이가 차 질식할수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주저없이 자기의 입을 환자의 입에 가져다 대였다. 환자가 숨길이 열리고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서야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어 치료사업을 벌리였다.

사실 이것은 피를 나눈 혈

육도 선뜻 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하기에 그것을 목격한 환자의 가족들은 『인간생명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제도가 아니였다면 어찌 이런 의료일군이 있을수 있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꽂펴날 수 있겠습니까.』라며 오열을 터뜨렸던 것이다.

치료사업에서의 성과는 그들만이 아닌 외파와 고려치료파, 산파 등 병원의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의사들의 미풍은 예사로운것으로 되고 있다.

오늘도 이곳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다름아닌 자기들이 빛내여간다는 자각을 안고 인간생명을 위해 정열과 지혜, 뜨거운 정성을 다 바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고려의 과학기술 (2)

봉건국가는 1377년 10월에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화약무기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화약무기로는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륙화석포 등 여러가지 포들과 화전, 철령전, 철탄자 등 불화살들이 였다. 이러한 화약무기들은 견고한 배에 설치되어 해상전투에 이용됨으로써 고려수군의 기술적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시 까지 세계적으로 배에서 총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고려에서 처럼 화포들을 함선에 설치하여 전투에 이용한 일은 없었다. 고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함선에 화포를 장비하여 실전에 적용함으로써 바다싸움에서 배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던 접현전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싸우는 리현전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고려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다음으로 배무이기술과 화약무기제작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고려시기 우리 인민들은 앞선 시기의 발전된 선박제작기술을 이어받아 크고 견고하며 항해능력이 높은 배들을 만들었다. 고려의 배들은 바다로부터 기여드는 외적을 격멸하는데서와 당시 중국, 동남아시아나 라들파의 무역활동에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사람들은 이미 12세기 부터 써오던 화구를 발전시켜 14세기 후반기 왜구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새로운 화약제조 및 화약무기제작기술을 발명하여 도입하였다. 최무선(1326년-1395년)은 1350년경부터 근 20년동안 노력한 결과

새로운 방법에 의한 화약제조법을 성공시켰으며 이에 기초하여

순화시켜 그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무명낳이, 천짜는 기구들이 새롭게 창안도입되었다.

14세기 문의점에 의하여 전해진 몇개의 목화씨를 밀천으로 하여 시작된 목화재배는 고려인민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마침내 성공하여 점차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목화송이에서 씨를 뽑는 씨아와 무명실을 뽑는 물레도 창안되어 보급되었다.

고려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다음으로 광업, 금속가공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고려사람들은 삼국시기의 속동체련과 철생산기술을 발전시켜 『고려동』이라고 불리우던 질좋은 합금동과 숙철들을 생산하였다.

이 시기 모래를 흐르는 물에 일어서 금을 얻는 사금채취방법인 도사련금법이 도입되어 많은 사금이 생산되었다. 고려사람들은 강가의 모래속에 많이 섞여있는 수철광도 사금과 같은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이렇게 고려시기 광석의 채취 및 제련기술의 발전에 토대하여 금속가공기술수준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금속가공품들이 생산되어 다른 나라들에 수출되었다.

이밖에 고려시기 건축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분야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이처럼 고려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주성철

건설로 약동하는 산골군

언제인가 미국 로스엔젤스에서 살고있는 지두 환동포가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로동자구 4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사촌동생 지대환을 비롯한 혈육들을 감격적으로 만났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형님!』, 『동생아!』 하며 얼싸안고 수십년 세월 쌓이고쌓여온 그리운 정을 터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고장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였다고 한다. 하여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취재길은 자연 운산군으로 향하게 되었다.

우리가 북진체신분소 분소장을 하고있는 지대환의 집을 찾았을 때 마침 평양에서 살고있는 그의 아들 지광철과 며느리가 손자를 안고 와있었다. 집안은 손자로 하여 흥성하고 있었다. 지대환은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고나서 손자녀석이 너무 보고싶어 우정 평양에 있는 자식들을 불렀다고 하며 자기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맙딸은 이웃에서 살고 사위는 자기와 한직장에서 일하는 혁신 자라는 것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딸은 평양에서 살림을 펴고 있는데 지난 4월에도 집에 와서 자기의 예순번째 생일을 즐겁게 쇠였다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형님에게 생일원 소식이랑 전하지 못하였는데 마침이라며 운산 땅에 대한 안내는 자기가 한다면서 우리를 새로 일떠선 금산소학교와 은덕원, 공원 등으로 이끌었다.

도시학교 부럽지 않게 꾸려진 금산소학교에서 우리와 만난 교장 문명학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중대한 사업으로 놓고볼 때 자기들이 한 일이 적

다고 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전망목표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학교를 돌아보고 읍거리의 건느라니 벌써 약동하는 운산의 기운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마저 뻗쳐왔다. 거리거리의 도로들이 완전히 새롭게 포장되고 강하천정리사업이 손색없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살림집들과 체육관, 학생소년회관, 병원과 료양소, 편의봉사시설들이 새롭게 개건되거나 또 건설되고 있었다. 버섯공장, 고려약공장, 직물공장 등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었다.

우리는 학생소년회관건설자들을 만나보았다.

건설을 책임진 김창백은 우리에게 최근 미국이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구실로 유치한 『제재결의』를 조작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 있지만 그것은 멸망해가는 자들의 최후발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건설자들은 백년숙적 미제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멸적의 기세를 안고 6개월만에 덩지 큰 군체육관건설을 끝낸 데 이어 학생소년회관건설에 달라붙었다고, 이 공사도 얼마 안 있어 완공되게 될것이며 그러면 자기들은 인차 살림집건설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면서 그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행복한 래일을 마련해가는 창조자의 멋이란 어디에 비길데 없다고,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모르겠다고 하는 것 이였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

해가는 사람들속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얼마전에 준공식을 한 체육관을 우리가 찾았을 때 이곳에서는 군의 배전소 대 국토감독대와의 배구경기가 한창이였다.

체육관일군인 김천일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체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새로 개건한 료양소며 공원,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하는 사람들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었다.

저녁무렵 우리는 새로 일떠선 살림집의 어느 한 세대를 찾았다.

읍 45인민반 5층 2호집이였다. 버섯공장에서 일한다는 세대주로 성일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방안으로 이끌었다. 3칸으로 된 방은 손색없이 잘 꾸려져 있었는데 량주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는 이 가정이 살기에는 집이 큰듯싶었다. 집주인은 우리에게 자기들이 이전에 살던 집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 집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읍지구에 더 많은 살림집들이 더 좋게 일떠서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집을 나서 저물어가는 읍지구를 바라보니 건설로 들끓는 이 고장,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을 말살하려고 미친듯이 날뛰여도 인민의 만복을 위해 약동하는 산간군의 보다 좋아질 래일이 가슴벅차게 안겨옴을 금할수 없었다. 그럴수록 미국에 살고있는 지두환동포가 사촌동생이 살고있는 이 고장을 찾아본다면 마음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젖어드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지두환동포의 사촌동생 지대환의 가정



학생소년회관건설에 뛰쳐나선 건설자들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체육관



평양산원 운산료양소
치료호동의 일부



변모된 운산군의 일부



《을밀대》제품에 마음을 담아



리미화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있는 을밀대양복점은 적지 않은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면서 찾는 곳들중의 하나이다.

동포들은 이곳에서 자기의 기호에 맞게 조선옷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옷들을 만들어 입군 한다.

《을밀대》상표가 붙은 양복점의 옷들은 동포들의 마음속에 평양의 모습처럼 간직되고 있다.

그럴 때면 을밀대양복점 책임자 리미화는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있다.

우리와 만난 그는 『우리 인민들과 동포들에게 우리 손으로 옷을 만들어 봉사할 때면 마음이 절로 즐거워집니다.』라고 말하였다.

지성적인 미가 느껴지는 그는 어찌보면 영화배우를 련상시킨다.

『피복은 제 어머니의 꿈이였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미화는 추

억의 노를 저멀리로 저어갔다.

미화의 어린시절은 일본 도쿄도 나까노구에서 흘렀다. 그의 어머니는 피복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조선사람이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수 없어 고구마구이, 음식장사를 하며 자식 네명을 떠여 살렸다. 그래도 자식들의 창자를 채울수 없게 되자 택시운전수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500km를 주행하곤 하였다. 그래도 어려운 집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늘 녹초가 되곤 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미화의 뇌리속에 깊이 새겨졌다. 미화는 꼭 커서 실현하지 못한 어머니의 꿈을 꽂피우고 싶었다.

주체69(1980)년 2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미화는 청진예술전문학교(당시)와 김보현대학을 졸업하고 피복계에 뛰어들었다.

하고싶어하는 일이여서 그런지 그는 힘든줄을 몰랐다. 여러 기술도서들과 참고서를 보면서 옷도안설계를 익혀나갔다. 미화의 옷도안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고상하고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서평양백화점의 한 일군으로부터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에 백화점에서 만든 모자를 보아주시고 여성들의 여름채양모자를 많이 만들어 팔아줄데 대하여 교시하신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옷도안과 함께 모자도안을 따라세웠다.

생김도 각이하고 성격도 다른 처녀들의 마음에 드는 모자도안, 나이지숙한 중년들에게 어울리는 모자도안 등 어린아이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백

조선옷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품합평회



건의 모자도안들이 설계되고 양복과 조화를 맞춘 모자들이 만들어지니 손님들이 너나없이 다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민족의 고유한 옷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하며 조선치마지고리를 비롯한 조선옷설계와 가공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국내산자재로 만든 옷과 모자에 불일 상표도 새롭게 착용하였다. 모란봉의 을밀대정

각이 그대로 내려앉은것만 같은 그가 창작한 《을밀대》상표도 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등록증을 받았다.

《을밀대》상표가 붙은 조선치마지고리, 조선바지저고리며 사계절에 맞게 지어진 양복 등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갔다. 한마디로 《을밀대》제품을 찾는 단골손님이 늘어갔다.

그럴수록 그는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자재의 질과

색에 따르는 재단과 가공을 높은 수준에서 하도록 매주 제품합평회를 조직하고 있다. 결과 재단사들과 재봉공들 누구나 모방이나 반복이 없는 독특한 자의것을 내놓고 있다.

그리면서도 그는 천을 비롯한 원자재들을 나라에서 생산된것을 쓰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체106(2017)년 광명성절경축 평양시 산업미술전시회에서 이 양복점이 내놓은 도안이 1등을 한것을 비

저녁시간에 공원에서



상식

온천치료의 좋은 점과 치료방법

온천이란 일반적으로 물의 자연온도가 20°C이상인 광천물을 말한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 일련의 병들이 잘 낫는다.

고혈압병에는 특히 류황온천과 라돈온천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류황이나 염소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온천은 여러가지 피부병치료에 아주 좋다. 이런데서 목욕을 하고나면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튼튼해지며 피부의 염증이 없어지고 비듬이 잘 떨어져나간다.

관절염, 각종 신경통치료에는 라돈성분이 많은 온천이 좋다. 뼈마디가 잘 놀지 않거나 가들어드는 때, 수술 자리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때에도 이런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 좋다.

부인병환자들도 이런 온천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온천치료법에는 온천물에서 목욕하는 법, 온천물을 마시는 법, 온천물에 담한 모래로 찜질하는 법, 온천물로 병있는데를 씻는 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목욕이다. 관절염, 피부병, 신경염, 신경통, 부인병환자들은 좀 뜨거운감(40°C안팎)이 있는 물에서 하는것이 좋고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에서 하는것이 좋다. 좀 뜨거운 물에서는 10~20분동안 하고 미지근한 물에서는 30분정도 하는것이 좋다.

* * *

롯하여 여러차례 전국조선옷전시회들에서도 우승을 하였다.

그는 조국에서 여러 피복제품들에 대한 심사도 맡아하고 있다.

언제인가 일본에서 사는 그의 맏오빠와 삼촌은 미화의 소식을 알고싶어 조국을 방문하였다가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동포들이 좋아하는 《을밀대》제품의 개발자가 자기 동생인데다가 평양의 중심부에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의 한 아파트에서 미화도 그레, 어머니를 부양하는 동생도 그레, 무상으로 집을 받아 각기 아래웃층에서 살고있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오빠도 삼촌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비야하는 조국의 모습을 제품마다에 담아 〈을밀대〉가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을밀대〉는 세계로 나갈것입니다.』라고 리미화는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원칠



조카의 편지를 받아보고

조카, 그동안 잘 있었소.
조카사위도 잘 있는지.

올해 2월에 조카가 보낸 편지를 반가이 받아보았소. 내용은 비록 길지 않았어도 글줄마다에 혈육의 정이 스며있어 마치 조카와 조카사위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구만. 그래 조카에게 회답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잡지 『금수강산』 기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았겠소. 하여 이렇게 조카한테 그동안의 소식이랑 전하게 되오.

우리 가정은 잘 있소.

나는 여전히 답사숙영소 식당에서 일하고있소. 조카도 알다실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우리 조국이 더욱 강해지는데 겁을 먹고 『위협』이요, 『제재』요 하며 못된짓을 다 하고있소. 그러나 우리는 배심든든해서 할 일을 다한다오.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함흥

으로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 답사하러 오는데 답사생들의 발길이 끊기는 날이 거의 없다오. 그들중에는 군인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다오.

답사생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스러운지 모두가 내 아들딸처럼 생각되어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저 마음뿐이라오. 비록 그들이 우리 답사숙영소에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모두가 나를 주방장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데 정말이지 정이 속속 듣다오. 그럴 때면 내 직업에 대한 류다른 궁지와 함께 맡은 일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결심도 굳어지군 하오.

함경남도 도시설계연구소에서 일하는 아들 은일이도 잘 있소. 건축설계를 전공한 은일이는 늘 밖에 나가 살다싶이 하오. 얼마전에는 고원군으로 출



장을 떠났소.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래일이 자기 같은 건축가들에 의해 앞당겨진다고 하면서 맡은 일에 여간 극성이 아니요.

함흥회복공장 기술준비실 기사로 일하는 며느리도 일을 잘 하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질좋은 옷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며느리는 늘 애를 쏟다오. 얼마전에 며느리가 창안한 새형의 옷도 안이 형식도 새롭고 인민들의 기호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아마 공장에서 크게 평가된가 보오. 공장에서 혁신자로 일 잘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음쓰는 며느리를 모두가 칭찬하오.

뭐니뭐니해도 우리 가정에는 손자 도현이가 제일 귀염둥이요. 집중력과 관찰력이 남다른 손자는 4살인데 벌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컴퓨터를 배우고있소.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는 과학자가 되겠다오.

저녁이면 가정이 모여 손자의 노래를 들으며 웃음꽃을 피우군하는데 그럴 때면 이국에 있는 조카생각도 간절해지오.

조카, 조국을 또다시 찾게 되면 꼭 만나기오. 그리고 앓지 마오. 건강해야 조카가 하는 일도 잘되고 우리와도 자주 만나게 될게 아니겠소.

그럼 잘 있소. 날이 차지는데 건강에 주의하길 바라오.

함흥시 동흥산구역 운흥2동
26인민반 정춘옥이모로부터

애국의 길에 쓰

다시 말은 입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교또본부 미나미지부에는 나이가 일흔이 지났지만 분회장사업을 하고 있는 한 동포녀성이 있다.

그는 김서영녀성이다. 그가 일흔이 넘도록 분회장사업을 하게 된데는 류다른 사연이 있다.

지난 시기 10여년간 분회장으로 일하였던 김서영녀성은 몇해전에 부분회장에게 분회장사업을 인계하였다. 이젠 나이도 있는데 뒤에서 젊은 이들의 뒤바라지나 잘해주자는것이 당시 그의 생각이었다.

새 분회장은 지내볼수록 믿음이 갔다. 매일과 같이 동포가정들을 찾고 찾으면서 분회를 더욱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분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김서영녀성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그는 그러한 분회장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새 세대동포들과의 사업은 어떻게 하며 동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 그는 분회장이 사업하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분회장과 먼길도 함께 걸으면서 신심과 용기를 잊지 않도록 고무도 해주었다.

그런데 그 분회장이 불치의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날줄 어이 알았으랴. 활기를 떠고 진행되던 분회사업이 분회장의 사망후 일시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김서영녀성은 다시 분회장사업을 맡았다.

몸이 불편하여 자주 병원출입을 해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였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굳하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리를 차고 일어서군 하였다.

그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분회는 동포녀성들이 의지하는 조직,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집안으로 되었다.

그는 지난해 가을에 진행된 『총련분회대표자 대회-2016』에 분회의 바통을 이어나갈 젊은 부분회장과 함께 참가하였다.

오늘도 김서영녀성은 열렬한 애국의 의지안고

새 세대동포녀성들을 애국위업 실현에 불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책임감의 높이는 사랑의 깊이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아이찌현본부 메이에끼메이사이지부 위원장 신영애녀성은 동포들속에서 『우리 위원장』으로 불리우고있다.

언제인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조직한 한 대회에 참가한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애국위업에 헌신한 총련 도꾜도 아다찌지부 산하의 한 분회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분회장의 빛나는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으며 자기도 그처럼 애국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2년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자자구구 학습하던 그는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의 생활상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시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그렇다. 애국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동포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동포녀성들의 친언니, 친동생이 되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동포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고충과 고민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그는 새 세대녀성들의 심리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분회들에서 민족료리와 수예배우기, 전강체조 등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조직하고 내밀어 그들에게 동포사회의 귀중함과 따뜻함을 새겨주고 생활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언제나 밝고 즐거운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 새 없는 문화체육활동을 통하여 동포녀성들의 단합은 더욱 촉진되었다. 조직과 동포들을 위해 궂은 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애쓰는 그를 동포녀성들은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가정의 크고작은 일들까지 허물없이 터놓게 되었다.

그는 늘 이렇게 외우군 한다.

책임감의 높이이자 동포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라고.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재중동포들

고국방문

자랑찬 승리의 상징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대표단 -

지난 8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방문기간 조선혁명박물관, 대성산혁명렬사릉, 려명거리를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며 비전향장기수들과의 상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고



봉모임도 가지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은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고 백두에서 개최된 주체혁명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며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려명거리를 돌아보면서 동포들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웅장하고 현대적인 거리를 일떠 세운데 대해, 조국의 자력자강의 위력에 대해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자기들의 격정을 터치였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과 상봉하였다.

부의장 차상보는 『려명거리는 그야말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반영한 하나의 축소판파도 같다. 세계는 아직 이처럼 빠른 건설속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정말이지 만리마속도가 창조된 려명거리야말로 조국인민들의 자랑찬 승리의 상징이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의 감동과 찬란의 목소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참관과정에도 울려나왔다.

부의장 최수봉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도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나 건물들이 있다. 그러나 조국에서처럼 돈



새로 일떠선 려명거리를 돌아보며

한푼 내지 않고 이처럼 훌륭한 무대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꽂피우며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여 북과 남의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대표단성원들 모두가 시간마다 달라지는 조국의 현실은 최후승리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언제나 조국과 함께

나는 조국에 자주 온다. 올 때마다 매번 생각되는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국이야말로 우리 해외동포들의 친정집이라 는것이다. 친정집에서나 느낄 수 있는 사랑과 정을 우리는 조국에 와서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국에 오면 떠나고 싶지 않고 왔다가면 또 오고 싶어 한다.

자식을 위하는 친부모의 사랑에 떠받들리여 우리는 이번에도 조국의 여리곳을 돌아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곳이 국가선물관이다.

국가선물관에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린 지

성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주체81(1992)년에 우리 가정에서 마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드린 지성품도 보았다.

절세위인들께서는 인민들이 지성을 다하여 올린 선물들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국가선물관에 보관하여 나라의 재부로 되게 하시였다.

나는 하나하나의 선물들을 보면서 이렇듯 인민은 수령을 진심으로 위하고 절세위인들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바로 여기에 조국의 일심단결이 그처럼 굳건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언제나 조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통일애국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흘룡강성 대경시지부 리경숙



나는 고국에 훌륭한 미림승마구락부가 있다는데 대해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와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마구락부의 모든 것은 현대적이었으며 손님들의 편리에 맞게 꾸려져 있었다.

말들 역시 세계적으로 이름난 종의 말들이었다.

보기에도 멋들어진 말우에 올라 드넓은 토사주로를 냅다 달려보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 나는 60살이 넘도록 이때까지 한번도 승마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두려움이 앞섰다.

로씨야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승마를 하는데 드는 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말을 탈 수 없다는 위구심이 앞서 나도 승마장에 나섰다.

승마복은 모양도 질도 대단히 좋았는데 척 입고나서니 60살이 지난 내가 단번에 멋쟁이승마수

승마의 기쁨

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실내승마장에서 오를로 브종을 골라 말우에 올랐다. 말은 형리하였다. 나는 말을 타고 승마장을 평보로 두바퀴나 돌았다. 그쯤 되고 보니 좀 속력을 내여 구보로 달려볼가 하는 욕망도 생기였다.

그런데 동행한 사람들이 기념 사진부터 먼저 찍는 것이 어떻느냐고 야단들이었다.

하여 나는 승마복차림에 말고 뼈를 잡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고국에서 난생처음 느껴 본 승마의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고 고국의 부흥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로씨야 깜챠뜨까주 리 리지야

역사인물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 홍경래

지난날 우리 나라 역사에서 봉건통치제도를 밀 뿌리채 뒤흔들어놓고 인민들을 반봉건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인물들 가운데는 평안도농민전쟁(1811년-1812년)의 지휘자 홍경래(1780년-1812년)도 있다.

평안도 봉강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군사놀이와 무술훈련을 즐겨했고 책읽기를 좋아하였으며 성격이 활활하고 정의감이 강하였다.

한때 중화에 사는 외삼촌의 서당에 가서 공부하던 그는 12살 때 『형가에게 보냄』이라는 시를 지어 외삼촌을 깜짝 놀래운 적도 있었다.

홍경래는 력사와 유교경전을 학습하는 한편 달리기와 활쏘기, 칼쓰기훈련을 부지런히 하였으며 동시에 병서도 열심히 읽었다.

18살 때 평양감영에서 열린 향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한성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평안도 출신인 것으로 하여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그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세를 파악하고 동료들을 규합하여 투쟁대오를 편성하는 등 폭동준비를 다그쳐나갔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그는 1811년 7월 이후 다복동 우군측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였으며 12월 18일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결기 당시 다복동에 집결된 농민군의 총병

력은 1 000여 명이였다.

농민폭동군은 며칠 사이에 평안도 청천강이북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기세충천한 농민군은 안주, 평양을 거쳐 한성으로 쳐들어갈 계획 밑에 12월 29일 송림에 진을 쳤다. 송림전투에서 농민군은 정부군을 삼면 포위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으나 력량상 차이와 전술상 차오로 하여 부득이 정주성으로 물러섰으며 곽산지역에서 싸운 농민군도 실패하여 정주성에 집결하였다.

농민군은 홍경래의 지휘 밑에 181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5차례에 걸쳐 정부군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용감히 싸웠다.

홍경래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동요 없이 부대를 지휘하면서 끝까지 싸웠으며 이 싸움에서 총지휘자였던 홍경래는 최후를 마치였다.

홍경래가 이끈 평안도농민전쟁은 세도정권 태도와 같은 혼존봉건정부의 전복이라는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광산로동자로부터 농민, 아전, 량반, 상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군중을 망라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반봉건투쟁이였다는 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동시에 봉건제도의 붕괴와 자본주의 관계의 발생발전을 촉진하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차광혁

유모아

로인의 착각

《땅!》

심판원의 신호총소리가 울렸다.

선수들은 일제히 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구경하면 로인이 깜짝

놀라 말하였다.

《원, 저렇게 끌끌한 짚은이들이 그까짓 총소리에 놀라 모두 달아나다니!》

*

*

*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 새로 발굴

개성시 선적리에서 고려 15대 왕 숙종의 무덤이 새로 발굴되었다.

지난 시기 나라의 민족문화 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 가려는 의도밀에 조선민족유산 보존사에서는 숙종의 무덤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이곳 연구집단은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위성화상에 의한 공간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고려왕릉들이 존재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공간분포특성을 분석하고 무덤의 위치를 확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 도착한 보

존사연구사들과 발굴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여일간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와 고려박

며 동서방향으로 놓인 4개의 축 대에 의해 구분되는 3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북쪽의 1구획에는 무덤칸파봉분기단시설, 곡장(무덤봉분둘레에 둘러놓은 담장)시설이 있으며 2구획과 3구획에는 문관상과 무관상들이 각각 2상씩 동서 6m정도의 간격을 두고 대칭으로 마주서 있다.

무덤칸은 잘 다듬은 화강석 통돌들을 2단으로 쌓아 남북길이 300cm, 동서너비 120cm, 높이 160cm로 된 반지하식구조물로 되여 있다. 무덤칸안 밀바닥에는 화강암판돌을 다듬어놓은 판대가 있다.

무덤전경



무덤칸 입구



무덤칸 내부



동쪽 문관상

서쪽 문관상

동쪽 무관상

서쪽 무관상

봉분기단시설은 웃면과 바깥 면을 가공한 화강석들로 한돌기 둘러놓은 시설로서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바른사다리형을 이루고 있다.

곡장시설은 1구획의 북쪽과 동쪽, 서쪽을 《ㄷ》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 시설은 각이

한 돌들로 차곡차곡 쌓고 그 위에 기와를 얹었던 시설로서 현재의 높이는 약 60cm정도이며 세면이 모두 10m정도이다.

발굴과정에 오랜 세월 흘러 오며 비록 도굴은 당하였지만 왕릉으로서의 성격과 시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금박을 입힌 나무관엽질조각들과 고려시기의 청동숟가락꼭지, 통무늬암기와 막새와 봉황새무늬수기와 막새, 통대가리모양잡상(지붕장식기

와의 일종)조각이 발견되었다.

공화국의 고고학학회에서는 발굴현장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이 유적이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임을 고증하였다.

새로 발굴된 고려 15대왕릉은 조선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발전된 문화를 새롭게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발굴된 유적들의 일부 (① 통대가리모양잡상조각, ② 통무늬암기와 막새, ③ 봉황새무늬수기와 막새, ④ 청동숟가락꼭지)



조선 김치 맛과 독

11월이 오면 조국의 그 어느 가정에서나 김치담그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김치는 한해 겨울의 반식량이라고 불리울 만큼 매 가정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국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지난 시기에 비할바 없이 높아지고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인 김치공장이 일떠서 김치생산이 공업화된 오늘날에도 가정들에서 김치 담그는 풍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김치 담그는 풍습은 이미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매해 이맘때쯤이면 우리 조국에서는 가정주부들이 김치를 담글 배추와 무우, 고추가루, 마늘과 같은 음식감들을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하기 위해 적지 않은 원심을 쓰군 합니다.

그런데 김치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포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



다실이 그것은 바로 김치독입니다.

독은 김치맛을 살리는데서 적지 않은 작용을 합니다.

독에 담그어 땅에 저장한 김치는 시원하고 쟁하지만 비닐용기 같은 것에 담그어 지상에서 보관하였던 김치는 그 맛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조선 김치 맛을 살려주는 독에 대하여 보기로 합시다.

독은 운두(그릇이나 모자, 신 같은 것의 둘레)가 높고 배가 부르며 전(물건의 웃쪽이나 중턱 또는 아구리 같은 데에 돌아가며 조금 넓적하게 생긴 부분)이 달린 큰 질그릇 또는 오지그릇으로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가장 널리 리용된 저장용기의 하나입니다.

독은 용도상 특징으로부터 음식물 그릇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 물, 김치, 쌀, 술 등과 같은 음식물을 저장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줄음률이 적고 풀기가 많은 점토를 빚어서 제품 모양을 만들어 말린 다음 900~1150°C 되는 랭에서 구워 만들었습니다.

독은 보통 토기질 독과 석기질 독으로 나눕니다.

석기질 독은 토기질 독에 비하여 더 견고하고 물기를 덜 빨아들일 뿐 아니라 결연에 칠물을 입혀 반들반들합니다.

조국의 민속학 연구사들은 우리 인민들이 독



을 써온 력사는 기록보다 훨씬 오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에 리용된 독은 대부분 찰흙을 빚어서 구워 만든 질독이였는데 밀굽이 둥글고 어깨, 목, 주둥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독의 형태로 보아 둉근 밀굽을 땅 속에 묻어 놓고 리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독은 고구려, 고려 시기를 거쳐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이르러 재료와 종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도기뿐 아니라 오지나 자기로도 만들었으며 크기에 따라 큰 독, 중독(중두리), 작은 독(조쟁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두리는 큰 독보다는 작은 배가 부른 오지그릇이며 조쟁이는 서해안지방에서 주로 젓갈을 담아 보관하는 용기로서 형태적으로는 독과 다르지만 용도상 독과 같습니다.

아마 해외 동포 여러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며 찌그러진 독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정 살림이 오죽 어려웠으면 독의 모양과 형태가 안겨오지 않는 독이였지만 수십년 세월을 정히 리용하였겠습니까?

만경대고향집에 오늘도 있는 독을 통하여서도 조선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가에서 쓰던 저장용 김치장 독은 아주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깍두기 같은 김치는 오지나 자기로 만든 작은 독에 담그었습니다.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2)

- 개성관덕정 -

개성의 력사유적 가운데는 관덕정도 있습니다.

관덕정은 개성시 자남산 서남쪽 바위 위에 있는 정자입니다. 관덕정의 처음 건축년대는 알리지 않고 있으나 오랜 역사와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관덕정은 이미 12세기의 기록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덕정은 옛날 양반들이 무파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활쏘기를 연습하던 정자로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초가집지붕의 정자였던 것을 1780년에 기정자로 고쳐지은 것입니다.

활쏘기련습장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한쪽에서는 활을 쏘고 다른 한쪽에는 목표물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관덕정은 그 모든 것을 보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덕정에 오르면 개성시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정자에 오르면 시내의 집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개성 류수가 새로 부임하여 올 때면 의례히 개성에 있는 많은 명승고적들을 다 구경시키면서도 오직 이 관덕정에 만은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관덕정에 오르면 매 가정의 부엌세간에 이르기까지 거리 거리를 손금보듯 알 수 있었으므로 류수의 등살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정자는 정면 3간(6.85m), 옆면 2간(4.85m)으로 넓이가 약 33.2m²이며 화려한 금단청을 한 목조 단층 건물입니다.

합각지붕에 소박한 단익 공식 두공을 한 이 건물은 무술을 닦는 루정의 성격에 잘 어울립니다.

기둥과 기둥사이를 어여낸 도리와 액방사에는 화반대신 5개씩의 소라를 끼워 넣은 것이 펑 텁탁한 맛을 줍니다. 관덕정의 기단은 다듬은 돌로 귀를 맞추어 2단으로 쌓았습

니다. 밀기단은 웃기 단보다 훨씬 넓게 하였습니다.

기단 위에 사각평면으로 되게 10개의 기둥을 둘려 세웠는데 루정의 후면 가운데는 두 기둥을 제외하고 있으나 오랜 역사와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관덕정은 이미 12세기의 기록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덕정은 옛날 양반들이 무파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활쏘기를 연습하던 정자로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초가집지붕의 정자였던 것을 1780년에 기정자로 고쳐지은 것입니다.

활쏘기련습장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한쪽에서는

는 활을 쏘고 다른 한쪽에는 목표물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관덕정은 그 모든 것을 보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덕정에 오르면 개성시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정자에 오르면 시내의 집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개성 류수가 새로 부임하여 올 때면 의례히 개성에 있는 많은 명승고적들을 다 구경시키면서도 오직 이 관덕정에 만은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관덕정에 오르면 매 가정의 부엌세간에 이르기까지 거리 거리를 손금보듯 알 수 있었으므로 류수의 등살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정자는 정면 3간(6.85m), 옆면 2간(4.85m)으로 넓이가 약 33.2m²이며 화려한 금단청을 한 목조 단층 건물입니다.

합각지붕에 소박한 단익 공식 두공을 한 이 건물은 무술을 닦는 루정의 성격에 잘 어울립니다.

표상과 리해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가정에서 김치를 담글 때에는 꼭 독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럼 올해 김치를 맛있게 담그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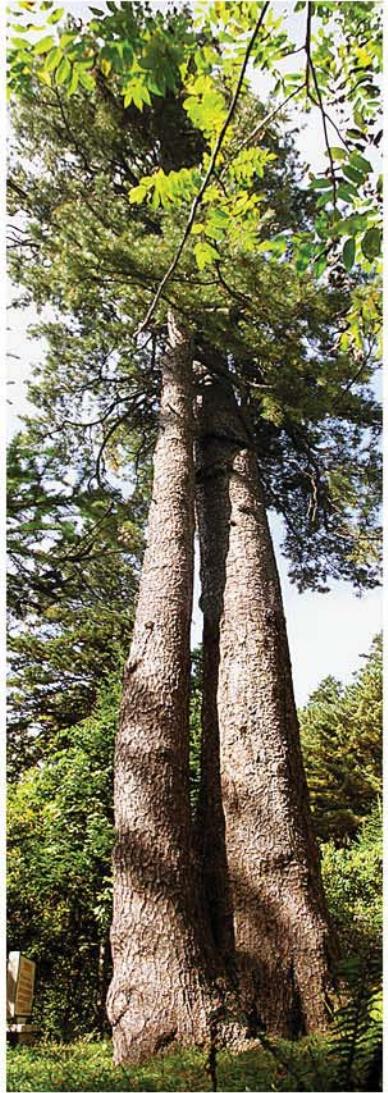
하였다면 왜 독에 담근 김치가 더 맛이 좋겠습니까?

비결은 독을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생기는 미세한 기포들이 대체로 김치가 들어 있는 독 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포여러분, 이번호를 통하여 독에 대한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락

조국의 천연기념물 (10)



오가산잣나무

자강도의 천연기념물에는 오가산잣나무, 오가산침터피나무, 룽대리만지송, 흥주닭, 롱림큰곰 등 있습니다.

오가산잣나무는 자강도 화평군 가림리의 오가산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조국의 잣나무중에서는 제일 크고 오랜 나무의 하나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무는

500여년 자란것으로서 높이는 25m, 뿌리목둘레는 5.1m이고 가슴높이둘레는 4.1m이며 나무갓직경은 8m입니다.

나무는 해발 약 820m높이에서 자라며 주변에는 가문비나무, 편나무 등의 원시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오가산침터피나무는 자강도 화평군 가림리 오가산의 령마루침터에서 150m 떨어진 북쪽 비탈면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시림의 자연력사를 보여주며 학술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것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어 잘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무는 1500년경부터 절로 자란것으로서 높이는 30m나 됩니다. 뿌리목둘레는 8m이고 가슴높이둘레가 5.1m이며 줄기껍질전반에 푸른 이끼가 돋아있습니다. 나무갓의 너비는 15m정도입니다. 나무는 1.5m높이에서 줄기가 두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가산침터피나무가 자라는 주변에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롱대리만지송은 자강도 고풍군 롱대리에 있는 천연기념물로서 리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200~250년 자란 이 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바늘잎키나무로서 이 지역에 분포된 만지송가운데서 그 모양이 제일 아름답고 풍치상의의가 크므로 잘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3m이고 밀둥둘레가 3m정도이며 밀둥직경은 1m정도입니다. 그리고 밀둥으로부터 여러개의 줄기가 뻗어올라가 수많은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김새는 마치 부채를 펼친 모양이며 줄기껍질은 붉은 밤색을 띠고있습니다. 나무는 수천수만의 가지를 친다고 하여 천지송, 만지송이라고 하며 모양이 둑근 쟁반과 같이 생겼다 하여 반송이라고도 합니다.

흥주닭은 오래전부터 자강도 흥주지방(강계)에서 많이 기르는 알파 고기용닭품종입니다. 털색은 누르스름한 밤색이고 꼬리와 날개끝은 푸른색을 띤 검

오가산침터피나무



은색입니다. 목에는 진한 누런색의 긴 털이 덮여있고 벽은 나무잎모양인데 암컷과 수컷에서 다 곧추 서있으며 외겹으로 되어있습니다.

몸질량은 수컷은 3.5~4.0kg이고 암컷은 2.5~3.0kg입니다.

흥주닭 암컷은 한해동안에 150~200개의 알을 낳는데 250개의 알을 낳는것도 있습니다. 닭은 생활력이 강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이 세며 성질이 온순하고 수정률과 알깨우기률이 높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닭은 병아리때에 빨리 자라므로 속성살찌우는 잡종병아리를 생산하는데도 쓰입니다.

롱림큰곰은 자강도 룽림군 후지리, 신흥리 일대에 있는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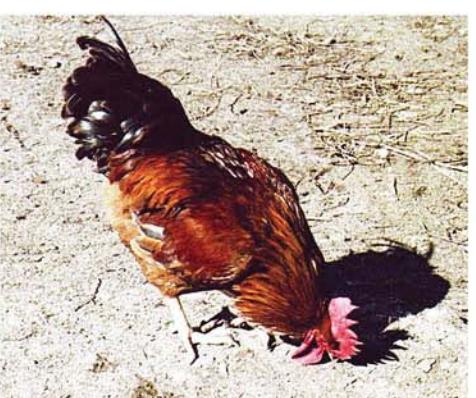
롱림큰곰

연기념물입니다.

롱림큰곰은 세계적으로 없어져가는 동물로서 대부분이 진한 밤색 또는 검은 색입니다. 큰곰은 바위굴이나 나무구새통, 진대나무밀에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는데 굴에 들어가는 시기는 11~12월이고 나오는 시기는 3~4월입니다.

큰곰은 고정된 삶이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기철



- 굽이 빠진 항아리에 물퍼붓기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보람이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참고: 밀빠진 항아리에 물퍼붓기

- 남의 말에 안장 지운다

① 제일을 한다고 한 노릇이 남의 리익을 위한 일로 되였을 때 이르는 말.

② 남의것을 제것처럼 쓰는 행동을 이르는 말.

- 남의 입에 떡 집어넣기

① 기껏 하느라고 한 일이 남 좋

- 모래로 물막을가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일임을 이르는 말.

참고: ① 모래로 방천한다
② 모래로 성쌓는다

- 밤새도록 문 뜯들기
애는 애대로 썼으나 제 기한에 미치지 못하였기때문에 애쓴 보람이 없게 된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 부러진 칼자루에 옷칠하기
이미 그릇된 일에 쓸데없이 노력과 성의를 들임을 비겨 이르는 말.

* * *

조선속담 (헛수고)

온 일을 하게 된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②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왕청같은 일을 한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 도끼등에 칼날을 불인다
서로 맞지 않는것을 가져다 불이려 하는것은 헛된 일임을 이르는 말.

① 기껏 하느라고 한 일이 남 좋

민족대단결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힘을 합쳐 이 땅, 이 하늘아래에 통일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울 열의에 넘쳐 투쟁하고 있다.

민족의 드높은 이 열의는 일찌기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령도였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라는것이 그이의 지론이였다.

지금도 그이께서 평양을 방문하였던 어느 한 재미동포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야 한다고, 북파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던 교시가 쟁쟁히 들려온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기운은 그 어느때보다 양양되고 있었다.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이루는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이러한 민족의 뜨거운 통일념원과 조성된 정

세의 요구를 통찰하신 그이께서는 지체없이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포괄하는 범민족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여 주체78(1989)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는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후 북파 남, 해외 3자의 범민족대회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민족이 분렬된이래 처음으로 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파탄시키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은 악랄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을 따르는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마침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당시 그이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첫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대회가 끝난 직후 대회 참가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이 단결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자본가들파도 단결하려고 한다고,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들 누구나 민족대단결의 가치밀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강령적인 가르치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그해 11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게 되었으며 이로써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그런 속에서 다음해 제2차 범민족대회가 열리기 전인 주체80(1991)년 8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데 대한 혁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담화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하기 위한 파업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그 실현에서 나서는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그이께서는 80고령에도 조국통일문제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여 온 민족을 대단결위업실현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처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깡그리 불태우신 그런 위인은 세상에 없다. 하기에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온 겨레는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유훈대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여야 한다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날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10번 이상 지났지만 세월의 흐름은 결코 일제의 조선침략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국권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 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당시 일제는 날강도적인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고종에게 전달하고 무조건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이 그것을

단호히 일축하자 일제는 군사적 힘을 동원하였다. 11월 17일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둘러싼 침략자들은 황궁앞 종로부근에서 보병 1개 대대, 포병중대, 기병련대의 군사훈련을 벌려놓고 조선봉건정부에 위압과 공포를 조성하였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정부대신들을 방에 가두어놓고 《조약》에 찬성 할것을 강박하였다. 일제는 이런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도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고 이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부대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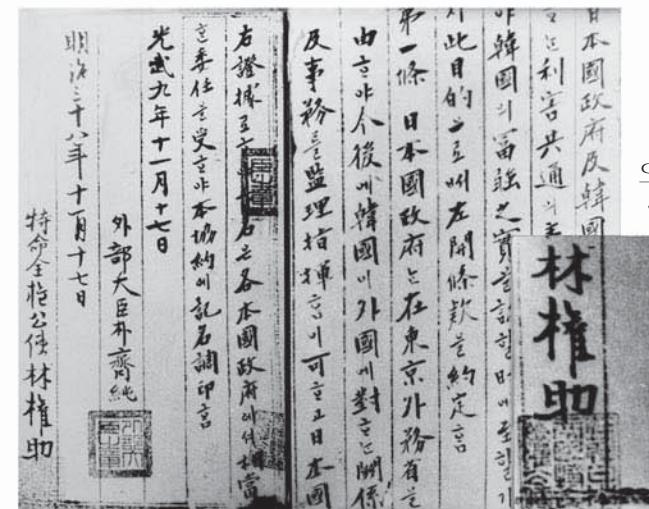
도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이로부터 《근대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원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을사5조약》은 강압과 협박으로 날조된 《조약》으로서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허지장에 불과하다.

《을사5조약》은 협법적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협약문서이다.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어있다.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며 결과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1894년에 조선봉건정부가 제정한 《공문식》(법)에는 《국서와 조약비준은 황제가 서명한 다음 국새를 찍는다.》고 규정되어있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도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다고 밝혀져있다.

제반 사실들은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 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을 명백히 증해주고있다.

일제는 이 《조약》을 내들고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민을 노예화하였다. 일제가 군사적 강점기간 조선인민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는 말이나 글로써는 다 읊겨놓을수 없다.

일본이 강도적인 침략행위로 조선인민을 노예화한 죄, 조선

강도적방법으로 날조된 《을사5조약》



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래탈한 죄, 조선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억제하고 조선의 분렬을 초래한 죄, 폐망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한 죄 등 그 죄악을 꼽자면 끌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이 초보적인 법적요구이며 국제적판례이다. 여기에 그 어떤 레외란 있을수 없다. 더욱 기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파거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조선에 대한 병탄은 『조선인스스로의 뜻에 따른 것』이라느니,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까지 거리낌 없이 내뱉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비롯하여 저들의 잘못된 침략역사를 외곡할뿐아니라 재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군국주의부활에로 질주하고있다.

지금 일본은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열을 올리는 한편 조선의 『위협』에 대해 오란스럽게 떠들며 공화국의 탄도로케트기지들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능력보유』까지 떠들고있다. 그리고 공화국의 탄도미싸일발사를 구실로 정부기관청사구내에까지 요격미싸일을 배치해놓는 소동과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의 기동전개훈련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으며 일반주민들까지 대피훈련이요 뭐요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저들의 재침야망이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한갓 꿈에 불과하다는것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과거죄악부터 성근히 청산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엎드려 사죄하라 트럼프여》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망발을 마구 늘어놓고있는 트럼프를 신랄히 단죄규탄한시 『엎드려 사죄하라 트럼프여』가 실려 각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시인 권말선이 창작한 시는 다음과 같다.

엎드려 사죄하라 트럼프여

전쟁을 운운하며 우리 민족 옥보인 미국이여
이 참에 제대로 사죄하는 법 배우라
살륙을 지시하던 손가락 모두 펼쳐 가슴에 얹고
멸시로 쪼르리고 오만 가득한 눈 내리깔고
거드름 피우며 훅신한 의자에 고고 앉던 다리 끓어
무참히 죽였던 만사람의 영혼 생각하며
철저히 사죄하라 반성하라 고개 숙이라
거짓과 탈취와 철면피 적반하장 강도에 깡패무리
미제의 이름앞에 불일수 있는것중
아름다운것은 없구나 단 하나도
미국 너로 인해 우리가 하루라도 성한 날 있었더냐
미국 너로 인해 상처입지 않은 이 있었더냐
서로 손가락질하며 미워한 세월이 원통하다
로쇠한 혀바닥으로 말대포나 쏘아대지만
전쟁전에 이미 진것을 누군들 모르랴
그러니 무기를 버리고 이 땅을 떠나라
네 갖고 놀던 충실한 장난감이었던
『보안법』따위 내 불살라버리련다
앉았던 그 자리 먼지 한톨 그늘 한자락 남기지 말고
부리던 주 『한』 미군 다 데리고
탄저균, 오염된 기름
걸레가 모자라면 혀바닥으로
닦고 또 닦고 홉아서라도 깨끗하게
순박한 우리 땅 되돌려놓고 가버려라
이제라도 미국없는 세상 살아야겠다
진정 해방된 세상 누리며 살아야겠다
우리 민족끼리 살비비며 살아야겠다
미군군화발에 짓밟힌 령흔들앞에
끓어 엎드려 참회하라 눈물흘리라
용서를 빌라 트럼프여
사죄하라 미국이여 울며 떠나라

조선의 관광



여행 오세요! 평양골프장으로!

평양골프장은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에 자리잡고있습니다.

골프장은 18개의 홀로 구성되어있으며 면적은 46정보, 연장길이는 약 7.6km이며 100여명이 동시에 경기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식당, 상점, 휴게실, 오락실과 면담실 그리고 목욕탕과 한증탕 등 봉사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풍치수려한 태성호반을 따라 꾸려진 골프장은 신선한 공기와 무성한 수림, 야산들의 매혹적인 풍치로 골프애호가들을 부르고있습니다.





수소탄시험성공을 경축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며 터져오른 황홀한 불보라.

주체적 핵 강국건설사에 특기 할 대경사인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격정과 환희
의 분출인양 수도 평양의 하늘가에 장쾌한 축포가 터져올랐다.